

【논 문】

‘개척’과 ‘식민’의 중첩적 표상

— 「만주국」 시기 南滿洲 농촌의 사회구성과 농민의 收支실태 —*

윤 휘 탁**

차례

- I. 서론
- II. 지주·소작관계와 농촌사회구성
- III. 경작·고용관계와 농촌사회구성
- IV. 농작물의 판매와 농민의 收支실태
- V. 결론

국문초록

북만주 농촌과 마찬가지로, 남만주 농촌에서도 토지의 개방과 불하가 늦게 이루어지고 극소수에게만 혜택이 주어지면서 토지소유관계가 극심한 불균등성을 나타내고 있었다. 이것은 남만주 농촌 내에서의 극심한 빈부격차를 초래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었다. 그로 인해 남만주 농촌에서도 북만주 농촌만큼은 아니지만, 소작농이나 고농의 비중이 컸다. 이들 소작농이나 고농은 농촌 내의 과잉인구를 형성해 값싼 노동력의 저수지 역할을 하고 있었다. 이것은 북만주 농촌에서와 마찬가지로, 남만주 농촌에서의 富農경영을 부추기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었다. 이러한 특성들은 분명 남북 만주가 ‘개척지’로서 지니게 된 요인이었다. 한편 일본의 만주점령으로 야기된 치안불안은 농산물 유통이나 농업노동력 수급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게다가 일본 식민당국의 戰時경제통제정책, 특히 농산물의 강제출하

* 이 논문은 2016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16S1A5A 2A01021985).

** 환경대 교양교육대학 교수.

와 물가의 통제 등은 남만주 농민들의 생활을 더욱 어렵게 만들었다. 이것은 분명 만주가 일본의 식민지로 전락된 데서 야기된 요인이었다. 한마디로 남만주 농촌에서는 북만주 농촌에서와 마찬가지로, ‘개척지적 요소’와 ‘식민지적 요소’가 총첩적으로 작용하면서 독특한 지역적·사회적 특수성을 드러내고 있었다.

주제어: 남만주, 북만주, 개척, 식민, 만주국, 농촌사회구성, 농업경영, 농민생활

I. 서론

근대 시기 만주는 동아시아의 여타 지역이나 국가와 달리, 19세기 중반부터 개방·개척되기 시작했고, 일본의 만주침략과 괴뢰 「만주국」의 건국으로 식민지로 전락되면서 ‘개척지적 요소’와 ‘식민지적 요소’가 중첩되어 지역적으로 독특한 사회현상을 드러내고 있었다. 특히 「만주국」 시기 北滿洲 농촌은 ‘개척지적 요소’와 ‘식민지적 요소’가 가장 집약되어 표출되고 있었다. 그 대표적인 특징으로는 토지소유의 극심한 불균등 현상, 토지 無소유자층과 無경작자층의 엄청난 비중, 富農경영의 발달, 농산물의 높은 상품화율과 극심한 가격등락, 일본 식민당국의 戰時경제 통제정책에 따른 농산물의 강제供出과 통제, 일부 지역에서의 치안 불안에 따른 독특한 촌락 운영 방식과 일시적인 노동력 수급의 곤란 등을 들 수 있다.¹⁾

그렇다면 「만주국」 시기 南滿洲 농촌에서도 북만주 농촌과 같은 ‘개척적 요소’와 ‘식민지적 요소’가 중첩되어 나타나고 있었을까? 만일 나타나고 있었다면, 「만주국」 시기 남만주 농촌에서의 그러한 특징은 북만주 농촌에서의 특징과 비교해 어느 정도였을까? 북만주 농촌과 남만주 농촌에서는 지역 특성상의 뚜렷한 차이가 있었을까?

1) 이에 관해서는 윤희탁, 2017.12, 「만주국 시기 北滿洲의 村落실태와 농민생활」(『만주연구』 제24집) 및 윤희탁, 2017.12, 「‘개척’과 ‘식민’의 중첩적 표상: 만주국 시기 北滿洲의 농업경영실태와 농민층의 변화」(『한국민족운동사연구』 제93집) 참조.

이 글은 상술한 문제의식에 기초해 「만주국」 시기 남만주 농촌의 사회구성²⁾과 농업경영상의 지역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한 것이다. 이 문제를 알아보기 위한 기초자료로서 이 글에서는 「만주국」國務院 統計處에서 주도적으로 조사³⁾·작성한 『鄉村社會調查報告書』(統計編)(1936.4) 및 『鄉村社會調查報告書』(記述編) I·II(1936.5)를 활용하려고 한다. 『鄉村社會調查報告書』의 조사 시기는 1935년(康德2년) 2월 28일부터 4월 11일까지였고, 조사한 촌락은 奉天省 海城縣 第一區 响堂村 攔河山屯(55호, 390명), 奉天省 西豊縣 第二區 更刻村 忠信屯(45호, 317명), 熱河省 凌源縣 第一區 十五里堡(23호, 108명), 吉林省 伊通縣 第二區 達子營屯(79호, 566명), 龍江省 龍江縣 第一區 大道三家子, 興安南省 科爾沁左翼中旗 第一區 二貝子府屯 등 6개였다. 그런데 이 글의 목적은 남만주 농촌의 사회구성과 농민의 收支실태를 밝히고 이 분석 결과를 「만주국」 시기 北滿洲 농촌의 특징들과 비교 분석함으로써, 만주 농촌사회 자체의 지역적 특수성을 밝히는 동시에, 방대한 만주 농촌의 지역적 차별성을 추출하려는 데 있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상술한 조사대상 촌락 가운데 북만주에 해당하는 龍江縣 大道三家子和 내몽골에 해당하는 興安南省 科爾沁左翼中旗 二貝子府屯을 제외하고, 남만주⁴⁾에 해당하는 나머지 4개 촌락(이하에서는 ‘향촌사회조사 대상 4개 촌락’으로 지칭함)의 조사결과와 아울러, 1938년 吉林省 開拓廳 農林科의 주관 하에 農事合作社 技術원들이 吉林省 扶餘縣 四家子屯에 파견되어 조사·작성한 吉林省開拓廳農林科 編, 『扶餘縣 四家子屯(康德五年度)農村實態調查報告書』(발행지 미상: 同農林科, 1939.3)도 같이

2) 이 글에서는 ‘사회구성’이라는 개념이 지주·소작농, 부농·雇農이라는 ‘계급’ 개념과, 半雇農·빈농·중농이라는 ‘계층’ 개념, 민족구성이란 ‘민족’ 개념까지도 포괄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 용어를 사용하려고 한다.

3) 滿洲國國務院統計處 編, 1936.5, 『鄉村社會調查報告書』(記述編)[이하에서는 『鄉村社會調查報告書』(記述編)이라 약칭함], 1쪽, 87쪽, 161쪽, 379쪽. 당시 조사대상 촌락들의 최대문제는 匪賊(항일무장세력이나 土匪)의 猖獗, 흉수나 흉년에 따른 饑饉상황, 농작물 가격하락에 의한 농촌공황 등이었다[滿洲國國務院統計處 編, 1936.4, 『鄉村社會調查報告書』(統計編)이하에서는 『鄉村社會調查報告書』(統計編)이라 약칭함], 1쪽].

4) 「만주국」 수립 이전 ‘남만주’와 ‘북만주’의 경계·범주는 일본과 소련 사이의 세력 범위에서 비롯되었는데, 대략 東清鐵道(中東路)를 기준으로 남쪽은 ‘남만주’, 북쪽은 ‘북만주’로 인식되고 있었다.

분석하려고 한다.

「만주국」 국무원 통계처에서 주도한 향촌사회조사에는 각 촌락마다 「만주국」 정부의 民政部, 土地局, 財政部, 統計處, 文教部, 滿鐵經濟調査會, 協和會, 縣公署 소속의 공무원 11~14명씩이 참여한 데서 알 수 있듯이, 농촌 조사반원들의 규모가 비교적 컸고 조사원들도 전문성을 지녔으며, 그 조사는 「만주국」 정부 내의 유기적인 협조체제 하에 이루어졌다. 가령 농촌개황과 농민의 생업 부분은 통계처에서 파견된 조사원들이, 정치 분야는 민정부 조사원들이, 토지실태는 토지국 조사원들이, 조세공과와 금융실태는 재정부 조사원들이, 교육상황은 교육부 조사원이 조사·작성하는 식으로 전문성을 극대화했기 때문에 이 조사보고서에 대한 신뢰도를 높여주고 있다.

또한 길림성 개척청 농림과가 주관한 농촌실태조사보고서의 경우, 조사 시점이 康德 5년(1938년)으로 『鄉村社會調査報告書』보다 조사 시점이 늦고 조사내용이 광범위하고 세밀해서 1930년대 후반 남만주 농촌사회실태를 분석하는 데 보완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다.

「만주국」 시기 농촌의 사회구성, 농업경영실태, 농민생활 등에 관한 선행 연구들⁵⁾은 대체로 북만주 농촌연구에 치우친 경향이 있다. 왜냐하면 그것은

5) 북만주 농촌을 다룬 선행연구로서 대규모 농가들(1만 85호)의 조사결과를 거시적으로 분석한 논문은 윤휘탁, 2017.12, 「‘개척’과 ‘식민’의 중첩적 표상: 만주국 시기 북만주의 농업경영실태와 농민층의 변화」, 『한국민족운동사연구』 제93집; 윤휘탁, 2017.12, 「만주국 시기 북만주의村落실태와 농민생활」, 『만주연구』 제24집이 있다. 몇 개의 촌락들을 미시적으로 분석한 논문은 윤휘탁, 1991.1, 「1930年代(1934~38) 北滿洲 農村的 社會構成」, 『東洋史學研究』 제35집; 윤휘탁, 2001.4, 「滿洲國 農村的 社會像: ‘複合 民族構成體’의 視覺에서 본 植民地 農村的 斷想, 1932~1945」, 『한국민족운동사연구』 제27집) 등이 있다. 전자는 濱江省 呼蘭縣 孟家村 孟家區와 北安省 綏化縣 蔡家窩堡 2개 촌락에 관한 사례 조사보고서를 토대로 1930년대 중반 북만주 농촌의 (半)雇農의 계층분해를 다루었고, 후자는 吉林省 延吉縣 陽城村 A屯과 下村屯을 대상으로 중국인과 조선인 두 민족의 토지소유 및 경작규모, 이들의 경영실태와 상호간의 민족인식 등을 비교·분석했다. 남만주 농촌을 다룬 것으로는 奉天省 梨樹縣의 사회경제구조를 분석한 中兼和津次, 『舊滿洲農村社會經濟構造の分析』(東京: アジア政經學會, 1981)이 있다. 이 책은 梨樹縣 한 곳만을 분석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그 분석결과를 곧바로 「만주국」 시기 남만주 농촌의 사회경제구조라고 단정하는 것은 곤란하다.

만주 전반의 연구동향을 정리한 것으로는 鈴木隆史, 1971.4, 「‘滿洲’研究の現狀と課題」(『アジア經濟』 第12卷 第4號); 金子文夫, 1979, 「1970年代における‘滿洲’研究の狀況(Ⅰ)(Ⅱ)」(『アジア經濟』 第20卷 第3號, 第11號); 孔經緯, 1984, 「最近東北區域研究資料目錄」(臺北: 中央研究院近代史研究所)가 있고, 만주 사회경제사 연구동향을 정리한 것으로는 柳澤遊, 1981, 「滿洲事變’をめぐ

남만주보다 북만주에 관한 조사보고서⁶⁾나 통계자료들이 상대적으로 많고 조사범위도 광범위해서 만주 농촌의 일반적 특징을 연구하는 데는 북만주를 연구하는 것이 제약이 덜 따르고 용이했기 때문이다. 반면에 남만주에 관한 연구는 조사보고서들이 상대적으로 적고 그나마도 활자화되지 못한 채 筆寫 謄寫本 형태로 남아 있거나 조사범위도 특정한 지역들로 한정되어 있어서 연구상의 제약이 따르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 점을 고려해보면, 남만주 농촌에 관한 연구는 거시적인 분석결과보다는 미시적인 분석결과를 도출하는 데 적합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상술한 촌락들을 대상으로 미시적인 차원에서 남만주 농촌의 사회구성과 촌락의 운영실태, 농업경영실태, 농민의 생활 그리고 이들 촌락의 농업경영과 생활에 영향을 미치고 있던 일본의 식민정책 등을 분석함으로써 남만주 농촌만의 특징들을 도출해내려고 한다. 이와 아울러 이 특징들이 북만주 농촌과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도 부분적으로 살펴보려고 한다. 물론 이 글에서 주로 분석하고 있는 5개 남짓 촌락들의 특징을, 대규모 농촌조사에 기초해 도출된 북만주 농촌의 일반적인 특징들과 직접 비교·분석하기는 곤란하겠지만, 이 글이 향후 남·북만주 농촌을 비교·분석하는 데 유용한 기초 자료가 될 수 있기를 고대해본다. 다만 紙面 관계상 남만주 촌락의 형성과정과 운영, 토지 소유관계의 추이와 인적 구성, 촌락민의 사회경제적 생활실태 등은 다른 지면을 이용하여 발표하려고 한다.

る社會經濟史研究の諸動向』(『歴史評論』第377號); 金子文夫, 1988, 『最近の‘滿洲’社會經濟史研究に關する文獻目録(1979~1987)』(『中國關係論說資料』第30卷 第4分冊 上); 尹輝鐸, 1999.12, 『中國의 ‘滿洲國’ 社會經濟史 研究成果와 課題: ‘收奪史’ 一邊倒의 植民地史 研究와 ‘愛國主義’의 限界』(『中國近現代史研究』第8輯)가 있다.

6) 『만주국』 시기에 조사·편찬된 농촌실태조사보고서로는 滿洲國國務院實業部臨時產業調查局 編, 1935, 『康德元年度農村實態調查報告書』(產調資料1, 全3冊)(新京: 同調查局); 滿洲國國務院實業部臨時產業調查局 編, 1936, 『康德元年度農村實態調查報告書』(產調資料36, 第1~4分冊)(新京: 同調查局); 滿洲國國務院實業部臨時產業調查局 編, 1937, 『康德三年度縣技士見習生農村實態調查報告書』(產調資料 38~41, 全4冊)(新京: 同調查局, 康德4年); 滿洲國國務院產業部 編, 1938, 『康德四年度縣技士見習生農村實態調查報告書』(全5冊)(新京: 滿洲國國務院產業部); 滿洲國國務院產業部農務司 編, 1938, 『康德五年度縣技士見習生農村實態調查報告書』(全5冊)(新京: 滿洲國國務院產業部農務司) 등이 있다.

II. 지주·소작관계와 농촌사회구성

일반적으로 농촌에서 농업경영 실적을 좌우하는 요소는 지주-소작 관계 혹은 토지의 貸付-貸借관계에 따른 토지경작규모와 소작료의 수준, 고용-피고용 관계에 따른 大農(富農)경영과 (半)雇農의 임금수준, 이러한 농업경영 조건에 따른 수익이나 농업노동자 수급의 유동성, 농작물의 경작·판매와 농산물 市況에 따른 수익성, 役畜 및 농기구의 보유상태에 따른 농업경영의 효율성과 생산성⁷⁾ 그리고 이러한 여러 가지 지표에 영향을 미치는 행정당국의 물가·농업정책 등이라고 할 수 있다.

<표 1> 南滿洲의 경영형태별 농촌사회구성 현황(1935, 1938) (단위: 晌, %)

部落 명칭	地主	地主 雇農	地主 自作	地主 兼自 小作	지주 소작	지주 雜業	自作	지작 고농	自 小作	지작 잡업	小作	雇農	기타	합계
海城縣 攔河山屯	1	-	3	-	1	2	12	-	7	5	8	5	11	55
西豐縣 忠信屯	1	-	2	3	2	3	2	-	1	2	15	11	9	51
凌源縣 十五里堡	-	-	-	-	-	-	21	-	3	15	4	10	1	54
伊通縣 達子營屯	4	-	4	-	6	6	5	-	2	1	30	13	8	79
합 계	6 (2.5)	-	9 (3.8)	3 (1.3)	9 (3.8)	11 (4.6)	40 (16.7)	-	13 (5.4)	23 (9.6)	57 (23.8)	39 (16.3)	29 (12.1)	239 (100.0)
扶餘縣 四家子屯	-	1 (1.8)	-	-	-	-	4 (7.2)	7 (12.5)	6 (10.5)	-	4(1) (7.2)	32 (57.2)	2 (3.4)	56 (100.0)

<출전> 攔河山屯·忠信屯·十五里堡·達子營屯은 滿洲國國務院統計處 編, 1936.4, 『鄉村社會調查報告書』(統計編), 19쪽에서; 四家子屯은 吉林省開拓廳農林科 編, 1939.3, 『扶餘縣四家子屯(康德五年度)農村實態調查報告書』(발행지 미상: 同農林科), 85 - 86쪽에서 산출.

<비고> 小作에는 小作兼雜業 13호가 포함되어 있다. 攔河山屯·忠信屯·十五里堡·達子營屯은 1935년도 조사결과이고, 四家子屯은 1938년도 조사결과이다.

특히 自作을 비롯해 지주-소작관계는 인류의 농업생활에서 매우 원천적인 것으로서 농민의 계급구성과 농업경영의 질적 수준을 규정하는 중요한 요소이다. 그렇다면 그러한 관계에서 형성된 南滿洲 농촌의 사회구성은 어

7) 윤휘탁, 2017.12, 『‘개혁’과 ‘식민’의 중첩적 표상: 만주국 시기 북만주의 농업경영실태와 농민층의 변화』, 『한국민족운동사연구』 제93집, 227쪽.

떠했을까? 구체적인 사례로 1935년도에 조사된 남만주 농촌의 향촌사회 조사대상 4개 촌락, 즉 奉天省 海城縣 第一區 响堂村 攔河山屯(55호, 390명), 奉天省 西豊縣 第二區 更刻村 忠信屯(45호, 317명), 熱河省 凌源縣 第一區 十五里堡(23호, 108명), 吉林省 伊通縣 第二區 達子營屯(79호, 566명)의 총 202호, 1,381명을 조사대상으로 한 경영형태별(특히 自小作別) 농촌사회구성을 살펴보면(<표 1> 참조), 소작농(소작 겸 잡업 13호 포함)이 23.8%(57호)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고, 그 다음에 順자작농이 16.7%(40호), 농업노동자가 16.3%(39호), 자작 겸 잡업이 9.6%(23호)로 비교적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다. 자신의 토지를 타인에게 貸付하고 있는 지주층은 38호로서 전체의 15.9%를, 타인의 토지를 貸借해서 소작에 종사하고 있는 농민층은 82호로서 전체의 34.3%를 차지하고 있었다. 이들 4개 촌락의 토지 종류를 보면 밭이 각각 91.0%, 87.6%, 76.4%, 80.8%로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고, 나머지는 채소밭, 水田, 산림, 原野, 宅地 등이 차지하고 있었다.⁸⁾ 조사범위가 확대된 吉林省 扶餘縣 전체를 보면, 총 농가호수 4만 7,115호 중 자작농은 15.4%인 7,278호, 자·소작농은 22.7%인 1만 721호, 소작농은 16.5%인 7,769호로서 소작 종사 농가가 39.2%를, 농업경영자群이 54.6%를 차지하고 있었고, 농업노동자는 45.4%인 2만 1,407호였다.⁹⁾

중국인과 조선인이 雜居하고 있던 길림성 伊通縣 達子營屯의 경우, 伊通河에서 관개를 할 수 있어서 수전경작에 유리한 환경을 갖추고 있었다.¹⁰⁾ 그래서인지 조선인 14호가 水田을 차입해서 소작경영을 하고 있었다. 조선인 소작농들은 지주주로 한족과 직접 소작계약을 체결한 것이 아니었다. 즉 公主嶺에 거주한 조선인 金英哉가 각 지주들과 소작계약을 한 뒤 다시 조선인 소작농들과 따로따로 소작계약을 맺어 수확고의 4할을 취득해서 일부를

8) 滿洲國國務院統計處 編, 1936.4, 『鄉村社會調查報告書』(統計編), 85 - 86쪽, 「No.1,2,3,4 經營形態別土地所有狀況」.
 9) 吉林省開拓廳農林科 編, 1939.3, 『扶餘縣四家子屯(康德五年度)農村實態調查報告書』(발행지 미상: 同農林科)[이하에서는 『扶餘縣四家子屯調查報告書』라 약칭함], 121쪽.
 10) 『鄉村社會調查報告書』(記述編), 444쪽.

각 지주들에게 지불하는 형태의 소작관계를 맺고 있었다. 이러한 소작계약은 一田兩主制의 遺風이라고 할 수 있다.¹¹⁾ 중국인과 조선인이 雜居하고 있던 달자영등은 민족별 경제관계나 민족적 위상 등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다. 향촌사회조사 대상 4개 촌락에도 조선인 16호가 거주하고 있었는데, 이들은 모두 중국인 지주로부터 水田을 차입해서 소작생활을 하고 있었다. 『만주국』에서는 ‘중국인 지주-조선인 소작농’이라는 관계가 보편적인 현상을 띠고 있었다.

熱河省 凌源縣 十五里堡는 54호(몽골족 52호, 한족 2호) 293명(몽골족 283명, 한족 10명)으로 구성된 사실상의 몽골족 촌락이었다. 경영형태별로 사회구성을 살펴보면 자작농은 21호, 자작 겸 鎊靑(鎊靑, 榜靑)¹²⁾은 3호, 자작 겸 잡업은 7호, 자작 겸 日工은 8호, 방청 겸 잡업은 4호, 농업노동자는 10호, 行商은 1호였다. 경작규모별로 보면 無경작자는 11호, 1상 미만의 半雇農은 17호, 1~3상의 극빈농은 18호, 3~5상의 빈농은 6호, 5~10상의 중농은 2호였다.¹³⁾ 십오리보에서는 개방 초기에 소수의 사람이 광범위한 토지를 점유한 채 한족에게 소작을 시켰지만, 해마다 인구가 늘고 소작료만으로 생계가 곤란해 지자, 이들 중에 出佃地를 차례로 회수해서 자작농이 되는 경우가 많았다.

11) 원래 『間島協約』에 따르면 조선인은 간도에서 토지를 소유할 수 있게 되었지만, 중국에서는 여전히 ‘외국인은 중국에서 토지를 소유할 수 없다.’는 법령을 간도에서도 적용하면서 非歸化 조선인에게 토지소유권을 허가하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조선인이 토지를 소유하기 위해서는 중국에 귀화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따라서 조선인은 중국 관헌과 잘 통하는 歸化 조선인의 명의로 토지를 획득하고 있었다. 그리하여 실제로는 귀화하지 않은 몇 사람 혹은 수십 명이 공동으로 토지를 소유하고 있었다. 명의를 빌려준 귀화 조선인(執照名義人)을 ‘地方主人’이라 하고 사실상의 다수 소유자를 ‘佃民’이라 한다[廣瀨進, 1936.9, 『間島及東邊道地方に於ける朝鮮の特殊性(二)』, 『滿鐵調査月報』 第16卷 第9號, 115 - 116쪽; 長野郎, 1931, 『滿洲問題の關鍵間島』(東京: 支那問題研究所), 86쪽; 中谷忠治, 1935.12, 『間島に於ける農業機構の概要(完)』, 『滿鐵調査月報』 第12卷 第12號, 68쪽].

12) ‘방청’이란 새로 개척한 지방에서 既墾地보다는 未墾地에서 행해졌던 分益小作의 성격이 띠는 소작형태로서, 지주가 토지 이외에 가옥, 농기구, 종자, 비료, 식량 등을 대여하고 미리 정해진 비율에 따라 지주와 소작인이 수확물을 분배하는 방식이었다. ‘방청소작’의 경우 소작인이 지주로부터 가옥, 종자, 비료, 식량 중에 어떤 것을 제공받느냐에 따라 수확물의 분배율도 달라졌다. 방청은 請負노동에 가깝거나 봉건적 색채가 농후한 소작관행이었다 [『鄉村社會調査報告書』(記述編), 315쪽].

13) 『鄉村社會調査報告書』(記述編), 164 - 165쪽.

그런데 일부 旗人(만주족)들은 생계가 곤란해지자 매매가 금지된 토지를 극히 낮은 地租(1畝당 1角)를 받고 出佃했다가 그 토지마저 잃고 小農으로 전락해버리곤 했다. 이 촌락의 1호당 평균 경작면적은 18.6畝에 불과할 정도로 인근 촌락에 비해 생활수준이 낮았다.¹⁴⁾

1938년 조사 당시 빈한한 농촌이었던 吉林省 扶餘縣 四家子屯에서는 지주 겸 雇農 1호¹⁵⁾, 자작농 4호와 잡업자 2호를 제외한 나머지 농민들이 자작, 소작, 고농의 방식으로 생활하고 있었다. 특히 이 촌락에서는 純고농의 비중이 전체 호수의 57.2%를 나타낼 정도로 토지소유의 불균등성 및 양극화가 심했다.

<표 2> 촌락별 경지 利用·處分 상황(1935)

部落 명칭	有土地 戶數	소유지 면적			貸付	自作	廢耕	入典	出押	出典	入押
		屯內	屯外	計							
海城縣 欄河山屯	31	72.82	26.00	98.82	10.40	88.42	-	4.00	-	0.4	-
西豊縣 忠信屯	15	108.95	45.13	154.08	61.08	86.50	6.50	19.75	1.90	2.0	30.0
凌源縣 十五里堡	39	29.43	39.40	68.83	-	67.19	1.64	9.54	2.70	15.1	-
伊通縣 達子營屯	28	238.13	130.40	368.53	287.40	74.53	6.60	-	-	-	-
합 계	113	449.33 (65.1)	240.93 (34.9)	690.26 (100.0)	358.88	316.64	14.74	33.29	4.60	17.5	30.0

<출전> 『鄉村社會調查報告書』(統計編), 100쪽.

1935년도 향촌사회조사 대상 4개 촌락의 自作地와 小作地 비율을 보면, 소작지가 자작지보다 2~8배가량 많았고,¹⁶⁾ 다수의 소작농 중심으로 농업경영이 행해지고 있었다. 扶餘縣 전체를 보면, 소작지보다도 자작지와 소작지를 같이 경영하는 형태가 많았다.¹⁷⁾ 1935년도 남만주의 촌락별 경지 利用·

14) 『鄉村社會調查報告書』(記述編), 168쪽.

15) 지주 겸 고농 1호는 아마도 경작규모가 너무 작아 타인에게 貸付하고 자신은 전적으로 고농 생활을 한 극빈농인 것으로 추측된다.

16) 『鄉村社會調查報告書』(統計編), 134 - 135쪽, 「83 部落別自作地・小作地ノ關係」, 『No.1,2,3,4 經營形態別自作地・小作地ノ關係』.

17) 吉林省開拓廳農林科 編, 1939.3, 『扶餘縣四家子屯(康德五年度)農村實態調查報告書』(발행지 미상: 同農林科), 88쪽.

處分 상황을 살펴보면(<표 2> 참조), 지주, 지주 겸 자작농, 지주 겸 자소작농, 자작농 중에는 屯內뿐만 아니라 屯外에도 토지를 소유하고 있었다. 屯內와 屯외의 소유지 면적을 비교해보면, 屯內의 소유지가 65.1%, 屯외의 소유지가 34.9%였다. 屯외에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지주들은 屯외에서 不在地主로서의 위상도 지니고 있었다. 달자영둔에서는 전체 소유지(368.54상)의 78%(287.4상)가 貸付되고 있을 정도로 지주층의 위상이 다른 촌락보다 상대적으로 높았다.

1938년도 扶餘縣 四家子屯의 소작형태별 건수를 보면, 전체 소작건수 17건 가운데 屯內 거주 지주로부터의 소작건수는 1건이었지만, 屯外 거주 지주(不在地主)로부터의 소작건수는 16건이었다. 이것은 사가자둔의 토지 상당부분을 소유한 부재지주들이 屯內의 농민들에게 토지를 貸借해서 소작케 하고 있었으며, 부재지주의 소유지 규모가 매우 컸고 토지소유의 편중현상도 매우 심각했음을 시사해준다. 특이한 현상으로 부재지주들 가운데 상당수는 本屯에 거주하다가 만주사변 당시 兵匪(주로 국민당 패잔병)의 수탈과 악행을 피해 縣城으로 이주한 사람들이 많았다. 이것은 일본의 만주 무력점령 과정에서 빚어진 ‘식민지적 요소’라고 할 수 있다.

사가자둔의 소작형태를 보면, 銀納定租 先佛이 4건, 物納定租 後佛이 10건, 銀納物納混濟定租가 2건이었는데, 미리 정한 소작료를 곡물로 납부하되 추수 후에 지불하는 物納定租 後佛형태의 소작방식이 가장 많았다. 부재지주의 토지를 경작하는 소작인들은 직접 지주로부터 감독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부재지주의 토지 소작을 더 선호하는 경향이 있었다. 지주와 소작인 사이의 통혼이 전혀 없던 것은 아니었지만, 일반적으로 통혼은 친척이나 지인 등 계급의 차이가 적은 사람들 사이에서 행해졌다.¹⁸⁾

소작계약 때의 구비조건을 보면, 1935년 조사당시 난하산둔과 십오리보에서는 證書나 보증인, 보증금 附加物 없이 口頭로 이루어졌고, 충신둔에서는 證書나 보증인을 요구하는 경우가 요구하지 않는 경우보다 많았다. 어떤

18) 『扶餘縣四家子屯調查報告書』, 93 - 96쪽, 114쪽.

경우에는 소작계약을 할 때 친척과 知人 이외에 소작 보증금과 중간 보증인 2~5명을 요구하기도 했는데, 보증금은 보통 1상당 20원이었다. 달자영등에서는 證書나 보증인을 요구하는 경우와 요구하지 않는 경우가 비슷했다.¹⁹⁾

향촌사회조사 대상 4개 촌락의 소작형태로는 정해진 소작료를 곡물로 납부하는 정액제 物納, 미리 정해진 소작료를 현금으로 납부하는 定額制 金納, 지주와 소작인이 생산물의 분배율을 정한 후 지주에게 정해진 분배액만큼의 생산물을 현금으로 환산해서 납부하는 분익제 金納, 농업생산물을 일정비율로 나누는 分益制 物納, 노동력 제공을 통해 소작료를 대납하는 勞動給付 등이 있었다. 4개 촌락 전체를 보면 정액제 물납이 46건, 분익제 물납이 20건, 정액제 금납이 11건, 勞動給付와 이자 형태의 차감(差引)양식이 각각 1건으로, 정액제 물납이 보편적이었고 분익제 물납도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다. 당시 남만주에서는 定額物納小作이 보편적으로 행해지고 있었다.²⁰⁾

상술한 4개 촌락의 경우, 소작료로는 高粱과 大豆를 반씩으로 해서 1晌당 3石이 지불되었다. 定額銀納小作은 주로 판매용 채소나 과일류를 재배할 때 행해졌는데 1畝당 5.5圓이 납부되었다. 지주는 보통 押契錢(보증금)에 대해 이자를 지불했는데 100원당 소작료 1.5石을 공제했다. 구두계약은 보통 5상 미만의 경작면적이 적은 경우로서 주로 친척과 知人 사이에 행해졌다. 수해를 입게 되면 소작료를 경감시켜달라는 소작인과 원래대로 납부하라는 지주 사이에 소작쟁의가 발생했는데, 일반적으로 중간 보증인의 중재 하에 농작물이 1번 침수되면 1할, 2번은 2할, 3번은 3할을 감면하는 방식으로 해결되었다.²¹⁾

부여현 사가자둔의 경우, 銀納定租 先佛은 계약 기간이 음력 11월부터 12월 사이에 이루어졌고 계약증서나 보증인은 없었으며, 구두로 행해졌고 계약기한은 1년이었다. 소작의 계속 여부는 지주와 소작인 사이에 따라 일정

19) 『鄉村社會調查報告書』(統計編), 『No.1,2,3,4 小作契約』, 115 - 116쪽; 『鄉村社會調查報告書』(記述編), 124쪽, 126쪽.

20) 『鄉村社會調查報告書』(統計編), 『No.1,2,3,4 小作契約』, 115 - 116쪽; 『鄉村社會調查報告書』(記述編), 124쪽, 126쪽.

21) 『鄉村社會調查報告書』(記述編), 124쪽, 126쪽.

하지 않았고, 소작료의 附加物이나 소작인에 대한 의무 등은 없었으며, 소작지의 부가물도 없었다. 소작료 납입시기는 계약과 동시에 완납했으며 소작인의 금융사정에 따라 2~3회 분납할 수도 있었고 별도의 이자는 없었다. 物納定租 후불은 수확 직후 탈곡한 곡물을 지주의 마당으로 옮겨 완납했는데, 납입물은 보통 高粱, 谷子, 小麥 혹은 黃豆였다. 소작료는 매년 계약을 갱신했다. 銀納物納混濟定租는 소작료의 절반을 은납정조로, 나머지 절반을 물납정조로 납부하는 소작형태이다. 일반적으로 남만주 농촌에서 國稅와 縣稅인 畝捐(토지세)은 지주가 전액을, 村費나 自衛團費 등은 소작인이 부담하는 것이 관례였다.²²⁾ 일반적으로 소작료는 토질뿐만 아니라 자연지리적 조건(기후, 도회지 시장과의 거리, 교통여건), 노동력 공급의 용이성 그리고 치안상황 등에 영향을 받고 있었다.

길림성 부여현의 소작관계 추이를 보면, 개척당시에는 생산한 곡물을 지주와 소작인이 나누어 갖는 分益物納 소작형태가 상당히 오랫동안 지속되어 왔지만, 점차 토지생산력이 증가함에 따라 분익물납소작이 物納定租로 바뀌기 시작했고 소작료도 올라가고 있었다. 러일전쟁 당시에는 모든 물가가 등귀하면서 소작료도 상승했으며, 만주사변 후에는 地價의 폭등과 지주들의 현금 소작료 납부요구 증대로 물납정조 형태에서 銀納(현금)定租 先佛 방식의 소작형태로 바뀌기 시작했다.²³⁾

<표 3> 吉林省 扶餘縣의 소작료 변천현황 (단위: 現洋 圓, 國幣 圓, 石)

소작 형태	1922	1924~1925	1926~1927	1928~1929	1930	1931	1932	1933	1934	1935	1936	1937
銀納(현금)	8.0	12.0	14.0	12.0	10.0	10.0	15.0	20.0	23.0	25.0	27.0	30.0
物納(곡물)(石)	4.0	5.0	5.5	5.0	5.0	5.0	4.0	4.0	5.5	5.8	5.0	5.5
分益(石)	3.5	1.8	2.5	2.5	2.5	2.5	3.0	2.5	2.5	2.7	2.5	2.0

<출처> 『扶餘縣四家子屯調查報告書』, 92쪽.

<비고> 『만주국』 수립 전인 1931년까지의 銀納 단위는 現洋 圓이었고, 1932년 『만주국』 수립 이후의 은납 단위는 國幣 圓이었다.

22) 『扶餘縣四家子屯調查報告書』, 93-95쪽.

23) 『扶餘縣四家子屯調查報告書』, 92쪽.

구체적으로 『만주국』 수립 전후의 吉林省 扶餘縣의 소작료 등락추이를 살펴보면(<표 3> 참조), 현금으로 지출되는 銀納의 경우, 1926~1927년 사이에 지속적으로 올랐다가 1932년 『만주국』 수립 전까지 다시 하락했으며, 『만주국』 수립 이후에는 다시 지속적으로 급등하기 시작했음을 알 수 있다. 『만주국』 수립 이전까지의 추세는 1929년 세계경제공황의 前兆와 그 후의 여파가 미치기 시작하면서 농산물의 폭락, 토지가격의 하락, 농업 생산성의 저하 등으로 인한 현금납부 소작의 현실이 반영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만주국』 수립 이후의 추세는 치안이 안정되고 ‘산업개발 5개년계획’에 따른 농업경제의 회복에 따라 농산물과 지가의 등귀에 따른 결과라고 볼 수 있다. 이에 비해 곡물로 납부하는 物納의 경우나, 생산물을 지주와 소작인이 일정한 비율로 나누어 갖는 分益小作의 경우 모두 소작료의 등락이 크지 않았다. 이것은 곡물의 가격등락에 따른 판매수익의 변화가 큰 은납소작과 달리, 농산물의 일정부분을 관례대로 수취하기 때문에 곡물가격의 등락에 큰 영향을 받지 않는 물납소작의 특성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소작료 등귀 추세는 『만주국』 농촌의 전반적인 상황이라서 남만주 농촌 역시 예외는 아니었다. 소작료 등귀는 직접적으로 소작인 생활의 악화를 의미한다. 실례로 길림성 부여현 사가지둔의 경우, 1921년경에서 1932~1934년 사이에 物納定租의 소작료는 1.5石(大豆 2斗, 高粱 6.5斗, 谷子 6.5斗)에서 1.7석(대두 3두, 소맥 2두, 곡자 6두, 고량 6두)으로 올랐고, 같은 시기 지가는 60원에서 130원으로 2.2배 등귀했다.²⁴⁾ 이처럼 소작료가 점차 등귀하고 1936년부터 물가가 폭등하고 생활비도 비싸지면서 소작형태도 은납에서 물납으로 바뀌는 추세를 나타냈다. 더욱이 수해, 병충해, 기뭄 등의 자연재해까지 겹치면서 소작인들의 삶은 점점 궁핍해졌고 불안정한 생활을 꾸려나갈 수밖에 없었다. 특히 사가지둔의 경우, 농촌실태조사에 직접 참여한 조사원이, “사가지둔 거주 소작인들의 상태는 매우 비참한 상태에 있다. 그들의 장래성을 고려해볼 때, 농촌실태 조사원으로서 진실로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²⁵⁾라

24) 『扶餘縣四家子屯調查報告書』, 117 - 118쪽, 『小作料騰落趨勢表』.

고 언급할 정도로, 남만주 농촌 거주 소작인들의 삶은 매우 비참한 상태에 놓여 있었다.

<표 4> 민족별 소작지 규모별 소작농가 분포상황(1934~1935)

구 분		5响미만	5~10상	10~30상	30상 이상	합계	1호당 평균
중국인 촌락	호수	318	116	87	14	535	5.99상
	%	59.4	21.7	16.3	2.6	100.0	
조선인 촌락	호수	45	13	11	-	69	3.13상
	%	65.2	18.8	16.0	-	100.0	

<출전> 滿洲國國務院産業部臨時産業調査局 編, 1935, 『農村實態調査報告書』(第1~4分册)(新京: 同調査局)의 중국인 촌락과 조선인 촌락의 「土地所有狀況」에서 산출.

<비고> 중국인 촌락은 吉林省 敦化縣 三台山屯, 磐石縣 柁家村, 草廟子屯, 榆樹縣 于家燒鍋屯, 第一區 邵家屯, 永吉縣 南荒地, 間島省 延吉縣 第四區村 大屯, 奉天省 梨樹縣 婁家油房屯, 第一區 勤耕村 前繞溝屯, 勤耕村 王家油房屯, 大于家窩堡屯, 第二區 儉富村 條子河屯, 西豐縣 德恩屯, 第三區 永安村 大油屯, 白石村 白石屯, 風化屯, 第五區 幽稚村 幽稚屯, 臥虎屯, 第七區 中陽村 中陽屯, 玉書村 居賢屯, 海龍縣 孫家街屯, 第二區 太平村 楊家街屯, 第五區 連山村 五家子屯, 王家街屯 등 24개로 조사연도는 1935년이다. 조선인 촌락은 길림성 돈화현 第四區 香水河子屯, 間島省 延吉현 陽村屯B屯, 第四區 楊城村屯 中間部落, 東拓屯 등 4개이다. 다만 영길현의 경우 조사연도는 1934년이다.

한편 개방·개척 과정에서 關内の 중국인뿐만 아니라 조선인들도 만주로 흘러들어왔고, 「만주국」 수립 이후에는 조선총독부의 조선인 이민정책이 대대적으로 추진되면서 조선인의 만주 이주는 급증했다. 이들이 중국인 지주의 소작인으로 생활하면서 중국인과 조선인이 잡거하는 촌락들도 증가하고 있었다. 이 과정에서 지주-소작관계를 둘러싸고 형성된 중·조 양 민족의 사회구성 역시 만주농촌의 지역적 특수성, 즉 ‘개척지적 요소’인 동시에 ‘식민지적 요소’이기도 하다. 1931년도 間島 및 琿春지방의 민족 간 지주-소작관계를 보면, 중국인 지주 비율은 43.5%였는데 조선인 지주 비율은 7.2%로, 전자가 후자보다 6배 이상 많았다. 반면에 조선인 소작농 비율은 31.2%로 중국인 소작농 비율(13.7%)보다 두 배 이상 많았다.²⁵⁾

25) 『扶餘縣四家子屯調査報告書』, 117 - 118쪽.

1934~1935년에 조사한 남만주 중부지역의 중국인 촌락 24개, 조선인 촌락 4개 등 총 28개 촌락의 경우(<표 4> 참조), 5상 미만 영세 소작농의 비율은 조선인 촌락(65.2%)이 중국인 촌락(59.4%)보다 높았다. 반면에 중국인 촌락에서는 30상 이상의 소작지를 통해 富農경영을 하고 있는 농가가 14호나 되었지만, 조선인 촌락에서는 소작형태의 부농경영을 하는 농가가 전무했다. 또한 중국인 촌락의 純지주 비율은 7%였지만 조선인 촌락의 순지주 비율은 1%에 불과했다. 중국인 촌락의 지주 비율은 18.2%였지만, 조선인 촌락의 지주 비율은 1%가 전부였다. 반면에 純소작농의 비율을 보면, 중국인 촌락은 33.1%였는데 비해 조선인 촌락은 72.5%에 달했다.²⁷⁾ 중국인 촌락에서는 1/3만이 순소작농이었는데 비해 조선인 촌락에서는 3/4이 순소작농이었던 것이다. 이는 「만주국」 시기 남만주 농촌에서 조선인의 사회경제적 위상이 중국인보다 훨씬 열악했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시사해준다.

이러한 민족별 위상의 차이는 1935년도에 조사된 연길현 楊城村 A屯과 第四區 楊城村 下村屯의 사례에서도 잘 드러난다. 즉 楊城村 A屯에는 중국인 지주나, 지주 겸 자작농이 각각 3호, 4호였지만 조선인 지주는 없었고 자작 겸 소작농이 1호, 소작농이 14호 있었다. 第四區 楊城村 下村屯에서도 중국인 지주와 고농이 각각 1호씩 있었지만, 조선인 중에는 지주가 없었고 자작 겸 소작농 1호, 소작농 9호가 있었을 뿐이다.²⁸⁾ 이 두 촌락의 사례에서도 극명하게 드러나듯이, 조선인 지주가 많고 조선인 거주 비중이 높은 閩島省을 제외한다면, 「만주국」의 대다수 지역에서는 중국인 지주와 조선인 소작농 사이의 계급적 관계가 보편적인 현상이었다고 할 수 있다. 당시의 전문가가 밝힌 것처럼 대부분 무일푼으로 만주로 들어온 조선인들은 중국인 지주로부터 토지를 대차해 소작농 생활을 하면서 중국인 지주로부터 착취를

26) 李學文, 「閩輝地方農況」, 1933.1, 『滿鐵調查月報』第13卷 第1號, 115쪽.

27) 滿洲國國務院產業部臨時產業調查局 編, 1935, 『農村實態調查報告書』(第1~4分冊)(新京: 同調查局)의 중국인 촌락과 조선인 촌락의 「土地所有狀況」에서 산출.

28) 滿洲國國務院實業部臨時產業調查局 編, 1935, 『農村實態調查報告書』(第二分冊)(新京: 同調查局), 346 - 349쪽과 558 - 559쪽의 「第二農家略歷表」에서 산출.

당하고 있었고 토지의 결핍을 통감하고 있었다.²⁹⁾

Ⅲ. 경작·고용관계와 농촌사회구성

농촌의 관계는 대부분 토지를 매개로 이루어지는데, 경작면적별로 농민 층의 사회구성을 살펴보면(<표 5> 참조), 향촌사회조사 대상 4개 촌락의 무경작자 비중은 1/3 가량인 34.3%(82호)를 차지하고 있었다. 부여현 四家子屯의 무경작자 비중은 무려 62.5%로 엄청난 규모였던 반면에, 30상 이상의 토지를 경작하는 농가 3호가 전체 경작면적의 53.9%(155响)를 경작하고 있었다. 물론 당시 무경작자들이 모두 농업 노동자들뿐이었던 것은 아니다. 가령 난하산둔의 무경작자 중에는 농업 노동자(5호), 지주(3호), 無職者(3호) 이외에, 行商(1호), 木匠(2호), 石炭商(1호), 燒餅舖(1호), 香匠(1호) 등이 있었다.³⁰⁾ 상술한 4개 촌락의 경우, 半雇農에 해당하는 3상 미만의 비중은 35.9%(86호)를, 3~10상 미만의 빈농층은 16.8%(40호)를, 10~30상의 중농층은 11.4%(17호)를, 30상 이상의 大農層은 1.7%(4호)를 차지하고 있었다. 특히 충신둔에서는 10~30상의 중농층 9호가 51.9상의 자작지와 102.8상의 소작지를, 30~50상의 大農 1호가 7.7상의 자작지와 30상의 소작지를 대차해서 농업경영을 확대하고 있었다. 달자영둔에서는 자작지가 전혀 없는 순 소작농 7호가 261.5상의 소작지를 대차해서, 그리고 50~100상의 대농층 2호가 83상의 자작지와 50상의 소작지를 대차해서 133상 규모의³¹⁾ 富農 경영을 추구하고 있었다. 사가자둔에서도 2호의 농가가 소작지 전체 면적 234.32상의 절반(50.4%)인 118상의 소작지를 대차해 부농경영을 추구하고 있었다.³²⁾ 즉 부농경영이

29) 廣瀨進, 1936.8, 『間島及東邊道地方に於ける鮮農特殊性(二)』, 『滿鐵調査月報』 第16卷 第18號, 119쪽. 만주사변 전 在滿 조선인 소작농의 삶이 얼마나 비참했는지에 대해서는 朴魯哲, 『長白山 줄기 밖으로 -- 吉林서 間島 8백리 --』(『동아일보』 1927년 8월 24일자)를 참조 바람.

30) 滿洲國國務院統計處 編, 1936.5, 『鄉村社會調查報告書』(記述編), 『部落の構成』, 3 - 5쪽.

31) 滿洲國國務院統計處 編, 1936.4, 『鄉村社會調查報告書』(統計編), 136 - 137쪽, 『83 經營面積別自作地小作地ノ關係』 및 『No.2.4 經營形態別自作地小作地ノ關係』.

보편화되어 있던 北滿洲 농촌에서와 마찬가지로³²⁾, 南滿洲 농촌에서도 일부 농가가 자작지 이외에 대규모의 소작지를 대차해서 부농경영을 추구하는 경향을 띠고 있었다.

<표 5> 경작면적별 농촌사회구성 (단위: 戶, 晌, %)

조사 연도	部落 명칭	戶數	無耕作	1晌 미만	1~3상	3~5상	5~10상	10~20상	20~30상	30~50상	50~100상	100상 이상	1호당 평균면적
1935	海城縣 攔河山屯	55	20	16	9	2	6	2	-	-	-	-	2.05
	西豐縣 忠信屯	51	22	2	8	4	4	8	3	-	-	-	5.15
	凌源縣 十五里堡	54	9	19	18	6	2	-	-	-	-	-	1.38
	伊通縣 達子營屯	79	31	3	11	9	7	9	5	4	-	-	7.72
	합 계 (%)	239 (100.0)	82 (34.3)	40 (16.7)	46 (19.2)	21 (8.8)	19 (8.0)	19 (8.0)	8 (3.4)	4 (1.7)	-	-	
1938	扶餘縣 四家子屯	56 (100.0)	35 (62.5)	10 (17.8)	2 (3.6)	1 (1.8)	2 (3.6)	3 (5.3)	(30상 이상) 3 (5.4)			5.27	

<출전> 攔河山屯·忠信屯·十五里堡·達子營屯의 경영규모별 경작면적은 『鄉村社會調查報告書』(統計編), 20쪽, 『4 各世帯/經營面積別=觀タル部落/構成』; 1호당 평균 경작면적은 『鄉村社會調查報告書』(統計編), 122-123쪽, 『No.1,2,3,4 經營面積別經營面積ト人口ト關係』 및 328-329쪽, 『部落別主要農產物賣却數量及價格』; 吉林省 扶餘縣 四家子屯의 경우는 『扶餘縣四家子屯調查報告書』, 84쪽.

조사범위가 확대되어 조사결과에 대한 보편성을 제고시켜준 奉天省 法庫縣의 1936년도 토지경작관계 실태를 보면, 조사대상 농가 4만 7,910호 가운데 토지를 전혀 경작하지 않은 계층은 16.2%인 7,765호였다. 법고현의 경작면적별 농촌사회구성이 남만주 농촌 전체의 사회구성을 대변한다고는 할 수 없지만, 이 수치를 보면, 남만주 농촌에서의 무경작자 계층은 북만주 농촌에서보다는 훨씬 낮았음을 알 수 있다. 이 현에서 3天地 미만의 토지를 경작한 半雇農層은 1만 6,235호로 전체 농가의 33.9%를 차지하고 있었다. 남만주 농촌의 극빈층에 속한 이 두 계층을 합치면 2만 4천 호로 전체 농가

32) 吉林省開拓廳農林科 編, 1939.3, 『扶餘縣四家子屯(康德五年度)農村實態調查報告書』(말행지 미상: 同農林科), 85쪽, 『第三, 經營面積高別小作戶數及面積』에서 산출.

33) 이에 관해서는 윤휘탁, 2017.12, 『‘개척’과 ‘식민’의 중첩적 표상: 만주국 시기 북만주의 농업경영실태와 농민층의 변화』, 『한국민족운동사연구』 제93집, 232-233쪽 참조 바람.

의 절반(50.1%)을 차지하고 있었다. 반면에 부농인 50~100천지의 농가는 0.1%(50호), 100~150천지의 농가는 0.05%(24호), 150천지 이상의 농가는 3호였다.³⁴⁾ 이는 남만주 농촌에서의 빈부격차가 북만주 농촌보다 크지 않았으며, 부농경영의 비중이 북만주 농촌보다 훨씬 적었다는 것을 시사해준다.³⁵⁾ 그리고 봉천성 법교현의 경우 빈농인 3~10천지의 농가는 35%인 1만 6,747호였고, 중농인 10~20천지의 농가는 12.1%인 5,793호, 20~30천지의 농가는 2.2%(1,051호), 30~50천지의 농가는 0.5%인 252호로서 모두 14.8%였다.³⁶⁾

<표 6> 촌락별 경작면적과 인구·농업종사자의 관계(1935) (단위: 响, 戶)

部落 명칭	경작면적	촌락 호수	농가 호수	인구	농업 종사자	1호당 면적	농가1호 당 면적	1인당 면적	**1인당 담당면적
海城縣 欄河山屯	112.70	55	45	390	79	2.05	2.50	0.29	1.43
西豊縣 忠信屯	262.90	51	41	396	75	5.15	6.41	0.66	3.51
凌源縣 十五里堡	74.50	54	53	295	76	1.38	1.41	0.25	0.98
伊通縣 達子營屯	609.53	79	75	566	155	7.72	*8.13	1.08	3.93

<출전> 『鄉村社會調查報告書』(統計編), 20쪽, 『59 部落別經營面積ト人口ト關係』.

<비고> *는 조사보고서에 80.20으로 잘못 표기된 것을 바로잡은 것이며, **는 농업종사자 1인당을 의미한다.

촌락별 경작면적과 인구 및 농업종사자 사이의 관계를 살펴보면(<표 6> 참조), 조사대상 촌락들의 인구는 295~566명이었고, 인구 대비 농업종사자 비율은 각각 20.3%, 18.9%, 25.8%, 27.4%로서 촌락마다 대략 인구 4~5명당 1명꼴로 농업에 종사하고 있었다. 농가 1호당 경영면적은 1.41~8.13상이었는데, 농가 1호당 면적이 상대적으로 적은 난하산둔과 십오리보는 다른 촌락에 비해 가난했을 것으로 짐작된다. 1인당 경작면적은 0.25~1.08상이었으

34) 滿洲國國務院實業部臨時產業調查局 編, 1937, 『康德三年度縣技士見習生農村實態調查報告書』(產調資料 41)(奉天省 法庫縣 第二區五臺子村 團山子屯)(新京: 同調查局), 4쪽에서 산출.

35) 북만주 농촌의 사회구성에 관한 상세한 내용은 윤휘탁, 2017.12, 『‘개척’과 ‘식민’의 중첩적 표상: 만주국 시기 북만주의 농업경영실태와 농민층의 변화』(『한국민족운동사연구』 제 93집), 223~274쪽과 윤휘탁, 2017.12, 『만주국 시기 북만주의 촌락실태와 농민생활』(『만주연구』 제24집), 133~187쪽 참조 바람.

36) 滿洲國國務院實業部臨時產業調查局 編, 1937, 『康德三年度縣技士見習生農村實態調查報告書』(產調資料 41, 奉天省 法庫縣 第二區五臺子村 團山子屯)(新京: 同調查局), 4쪽에서 산출.

며, 농업종사자 1인이 담당할 면적은 0.98~3.93상으로 촌락별 편차가 컸다. 난하산둔의 경우 1호당 평균경작면적은 町으로 환산하면 1.8町 정도였는데, 비슷한 시기 「만주국」 각 省의 농가 1호당 평균경작면적에 대해 두 조사팀이 산출한 결과를 보면, 봉천성은 2.982町, 1.795정, 길림성은 5.936정, 5.172정, 흑룡강성은 8.782정, 7.7정이었고, 「만주국」의 평균은 4.369정, 3.4정이었다. 昭和 7년(1932) 일본 본토의 1호당 평균 경작면적은 1.06정이었다.³⁷⁾ 또한 십오리보의 농가 1호당 평균면적도 15畝(1天地 반)로 大泉眠 13天地, 永吉縣 2响, 普蘭店 4町 6反, 만주 전체 4町餘에도 미달하여 자작농조차도 영세 농에 속할 정도였다. 따라서 십오리보에서는 토지의 수입만으로 생활하는 것이 곤란해 각종 겸업이나 노임수입을 얻으려고 노력했다.³⁸⁾ 그런데 이 두 촌락의 1호당 평균경작면적은 다른 지방보다 적었지만 일본 본토의 그것보다 는 컸다.

<표 7> 達子營屯의 계층별 경작면적과 세대원수·농업종사자 수의 관계(1935)

계층별	호수 (戶)	경작면적(响)			세대원수(명)		농업 종사자		
		전체면적	1호당 평균	1인당 평균	전체	1호당 평균	전체 (명)	1호당 평균(명)	1인당 담당면적
無경작자	30	-	-	-	137	4.6	-	-	-
1响 미만	3	0.70	0.23	0.05	13	4.3	4	1.3	0.18
1~3상	7	12.13	1.73	0.33	37	5.3	15	2.1	0.81
3~5상	10	33.70	3.37	0.65	52	5.2	19	1.9	1.77
5~10상	9	51.90	5.77	0.91	57	6.3	26	2.9	2.00
10~20상	11	145.10	13.19	1.75	83	7.5	37	3.4	3.92
20~30상	3	77.00	25.67	2.08	37	12.3	11	3.7	7.00
30~50상	4	156.00	39.00	1.86	84	21.0	28	7.0	5.57
50~100상	2	133.00	66.50	2.02	66	33.0	15	7.5	8.87

<출전> 『鄉村社會調查報告書』(統計編), 123쪽, 『69 No.4 經營面積別經營面積ト人口ト關係』.

37) 『鄉村社會調查報告書』(記述編), 44 - 45쪽.

38) 『鄉村社會調查報告書』(記述編), 236쪽. 이것은 십오리보의 54호 중에 자작 겸 농업노동자가 4호, 소작 겸 농업노동자가 4호, 소작 겸 잡업자가 2호, 자작 겸 잡업자가 1호였다는 사실에서도 짐작된다(『鄉村社會調查報告書』(記述編), 235쪽).

1935년 조사당시 계층별로 인구가 고르게 분포되어 있던 달자영둔의 계층별 경작면적과 세대원수·농업종사자 수의 관계를 살펴보면(<표 7> 참조), 50~100상인 大農 1호의 평균경작면적(66.5畝)은 1~3상의 半雇農 1호의 그것(1.73상)보다 무려 38배, 3~5상의 極貧農 1호의 그것(3.37상)보다 약 20배나 컸다. 世代員數도 경작규모가 클수록 많아서 50~100상인 大農의 1호당 세대원수(33명)는 1~3상의 半雇農(5.3명)이나 3~5상의 극빈농의 그것(5.2명)보다 무려 6배 이상 많았다. 扶餘縣 四家子屯의 경우에도 中農·貧農群의 家族員數는 1호당 평균 8명, 극빈농군은 평균 6.3명, 定雇(年工)는 평균 6.0명, 不定雇는 평균 4.9명이었다.³⁹⁾ 이것은 경작규모가 큰 농가일수록 경제력이 좋아서 부양가족 수가 많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1호당 농업종사자 수도 경작규모가 클수록 더 많았다. 이것은 경작규모가 클수록 농업노동력 수요가 많았던 데서 비롯되었다.

남만주 농촌의 농업노동실태를 보면, 농업노동자의 종류로는 零工, 換工, 帶地年工, 年工(打頭的, 趕車的, 下地的, 半拉子, 看牲口的, 打更的, 大師夫, 猪官兒, 半官兒),⁴⁰⁾ 月工, 日工 등이 있었다. 십오리보의 경우 연공의 임금은 고용주와의 협의를 통해 결정되었고, 월공은 고용주 결정에 의하거나 그와의 협의를 거쳐서, 일공은 노동시장의 相場에 의하거나 고용주와의 협의의 의해 결정되었다. 임금의 지불 시기나 방법을 보면, 연공의 임금은 고용주가 처음에 20원, 끝나고 20원을 주거나, 처음에 10원, 끝나고 30원을 지불했다. 연공이 빈곤을 느끼지 않을 때는 2개월 내지 4개월마다 약간씩 지불했다. 월공의 임금은 매월 두세 차례 지불하거나 필요에 따라 지불되었다. 일공의 임금은 매일 노동이 끝나면 지불되었다. 임금액을 보면, 연공은 평균 43원 40전이었고, 월공의 임금은 매월 평균 5~6원이었다. 일공은 농번기와 농한기에 따

39) 『扶餘縣四家子屯調查報告書』, 127쪽, 「一戶當平均人員」.

40) 농업 노동자의 역할에 관해서는 윤휘탁, 2017.12, 「‘개척’과 ‘식민’의 중첩적 표상: 만주국 시기 북만주의 농업경영실태와 농민층의 변화」, 『한국민족운동사연구』 제93집, 247 - 248 쪽; [滿洲國實業部臨時產業調查局 編, 1937, 『康徳元年度農村實態調查報告書 雇備關係并に慣行篇』(産調資料 45 - 5)(新京: 同調査局), 28 - 32쪽 참조 바람.

라 차이가 컸는데, 농번기에는 임금이 30~40전 높아졌다. 특히 아편 수확기에는 일공의 임금이 40전이나 더 올라갔지만 그 기간은 10일에 불과했다.⁴¹⁾

<표 8> 농업노동자의 임금 변천현황

구분	年工(打頭的)	日工(成工)의 上級			
		파종기(圓)	除草中耕期(圓)	수확기(圓)	타작기(圓)
大同元年(1932)	50 - 55圓	0.30	0.70~0.80	0.50~0.70	0.30
康德 2년(1935)	80 - 90원	0.30	0.80	0.60~0.70	0.30
강덕 4년(1937)	110원	0.40	0.70~1.00	0.80~1.00	0.40
강덕 5년(1939)	120원	0.40	1.00	0.80~1.00	0.60

<출처> 『扶餘縣四家子屯調查報告書』, 141쪽.

또한 扶餘縣 四家子屯의 1938년도 雇農, 즉 농업노동자들의 종류별 임금 수준을 살펴보면, 年工 上級の 경우 打頭的(150원) > 趕車的(130원) > 跟做的(100원) > 大師傅(70원) > 打更的(60원) > 大半拉子 > 小半拉子(20원) > 猪管兒(10원) 순이었다.⁴²⁾ 1個月工의 월별 임금은 3월에 8원, 4월에 10원, 5월에 12원, 6월에 18원, 7월에 18원, 8월에 12원, 9월에 18원, 10월에 14원이었다. 월공의 임금은 6~7월의 제초기와 9월의 추수기에 가장 높았다. 日工의 임금은 成工(성인 노동자) 上級の 경우, 파종기에 0.6원, 제초기에 1.2원, 수확기에 1.2원, 농한기에 0.5원이었다. 일반적으로 여성 노동자는 주로 제초기에 많이 고용되었다.⁴³⁾ 계층별로 1인당 임금수입을 살펴보면, 극빈농군의 임금수입은 92.04원, 定雇(年工)는 90.60원, 定不定雇(주로 月工)는 64.03원, 不定雇(주로 日工)는 54.45원이었고, 1인당 평균임금수입은 67.28원이었다. 임금수입은 극빈농군 > 정고 > 정부정고 > 부정고 순이었다.⁴⁴⁾ 또한 남만주 농촌에서는 <표 8>에서 알 수 있듯이, 농업노동자들의 임금이 꾸준히 상승하고 있었다. 「만주국」이 수립된 1932년(大同元年)부터 1938년까지 농업노동자를 지

41) 『鄉村社會調查報告書』(記述編), 246 - 248쪽.

42) 『扶餘縣四家子屯調查報告書』, 130쪽.

43) 『扶餘縣四家子屯調查報告書』, 131 - 132쪽.

44) 『扶餘縣四家子屯調查報告書』, 137쪽.

회·감독하는 年工(打頭的)의 임금은 2배 이상 올랐고, 日工의 임금은 같은 시기 2배 오른 타작기 때를 제외하면 파종기, 除草期, 中耕期, 수확기 때 모두 30% 정도 상승하고 있었다.<표 8> 참조 당시 일거리를 찾는 노동자들은 습관적으로 縣城의 특정장소로 모여들었기 때문에 노동시장은 자연발생적으로 열렸다.⁴⁵⁾

남만주의 농촌 내부에서는 농가들의 농업노동양태가 끊임없이 바뀌었다. 이것은 농민층 내부의 上向分解 혹은 下向分解와 관련이 있었다. 가령 사가 자들의 경우, 자소작농이 半雇農으로 전락한 건수는 2건, 年工으로는 1건, 不定雇로는 2건이 있었고, 반고농이 연공으로 전락한 건수는 3건, 부정고로는 2건, 연공으로는 5건이 있었다. 즉 농촌 내 경제적 위상이 하락한 건수는 모두 15건이었다. 반면에 부정고가 연공이나 반고농으로 상향된 건수는 각각 1건씩이 있었고, 연공이 반고농이나 자소작농으로 하락한 건수는 각각 9건씩, 반고농이 자소작농으로 상향한 건수는 4건이 있었다. 즉 농촌 내 경제적 위상이 상향된 건수는 모두 22건이었다.⁴⁶⁾ 이처럼 농촌 내에서 자소작농, 반고농, 고농(연공=정고, 부정고) 등 극빈농이나 농업 노동자들 사이에는 직접 농사를 짓느냐 혹은 임노동에 종사하느냐에 따라 경제적 위상이 달라지는 등 유동성을 띠었지만, 그렇다고 그들의 경제적 위상이 근본적으로 달라진 것은 아니었다.

<표 9> 촌락별 연도별 농작물의 作付 상황(1933 - 1934)

촌락명	호수 (호)	연도	총 파종		大豆		高粱		谷子		包米		小麥		水稻 (%)	陸稻 (%)	糜子 (%)	기타 (%)
			면적 (畹)	면적 (%)	수량 (石)	면적 (%)	수량 (石)	면적 (%)	수량 (石)	면적 (%)	수량 (石)	면적 (%)	수량 (石)					
海城縣 欄河山屯	20	1934	78.20	12.4	4.30	38.3	6.75	21.1	5.64	4.2	3.33	0.6	0.80	1.7	-	0.6	21.0	
		1933	77.18	12.7	4.32	37.2	6.20	24.6	6.49	5.6	3.25	0.6	0.80	1.0	-	0.6	17.6	
西豊縣 忠信屯	15	1934	152.00	23.7	2.75	37.6	4.94	8.6	1.47	19.0	5.20	-	-	2.0	1.3	0.3	7.5	
		1933	-	-	-	-	-	-	-	-	-	-	-	-	-	-	-	-

45) 『鄉村社會調查報告書』(記述編), 250 - 251쪽, 346쪽.

46) 『扶餘縣四家子屯調查報告書』, 139쪽.

촌락명	호수 (戶)	연도	총 파종		大豆		高粱		谷子		包米		小麥		水稻 (%)	陸稻 (%)	糜子 (%)	기타 (%)
			면적 (畷)	收量 (石)	면적 (%)	收量 (石)	면적 (%)	收量 (石)	면적 (%)	收量 (石)	면적 (%)	收量 (石)						
凌源縣 十五里堡	31	1934	16.20	8.3	2.69	17.2	1.76	32.3	4.07	6.2	2.00	-	-	-	-	1.9	34.3	
		1933	12.53	11.5	2.15	22.2	2.01	39.7	4.52	0.1	2.00	-	-	-	-	2.4	24.1	
伊通縣 達子營屯	79	1934	409.50	39.6	2.17	21.4	1.76	18.0	1.26	0.1	0.0	-	-	11.8	0.3	2.6	6.1	
		1933	332.35	46.4	3.36	22.1	4.03	22.6	4.13	-	-	-	-	0.8	0.9	2.4	4.8	

<출전> 주요작물의 파종면적과 파종비중(%)은 『鄉村社會調查報告書』(統計編), 『部落別農作物作付狀況』, 276 - 277쪽에서; 收量(1畷當 수확량)은 『鄉村社會調查報告書』(統計編), 292 - 293쪽, 『部落別主要農作物畷當收量』에서 산출.

<비고> 서풍현 충신둔의 경우 1933년도의 作付상황 통계가 결여되어 있다. 수도, 육도, 미자의 경우 1933년도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연도별 수확량의 증감을 파악할 수는 없다.

조사대상 촌락들의 1933~1934년도 주요 농작물의 作付상황을 살펴보면 (<표 9> 참조), 이 기간 전체 파종면적은 약간 증가했는데, 상품화율이 높은 상품작물인 大豆를 비롯해 주식작물인 高粱과 谷子が 전체 파종면적에서 차지한 비중은 대체로 감소추세를 보여주고 있었다. 벼(水稻)의 파종면적 비중은 이 기간에 급증하고 있었다. 이것은 벼의 수요증가 및 상대적인 고물 가격에 따른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보인다. 특히 달자영둔에서 벼의 파종면적이 급증한 것은 이 촌락으로 이주한 조선인 농가 14호 가운데 5호가 한족의 토지를 빌려 37畷의 면적에 벼를 파종해 벼농사 규모를 늘렸기 때문이다.⁴⁷⁾ 당시 한족 지주들 중에는 밭농사보다 논농사가 더 많은 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판단하여 조선인을 소작인으로 삼아 벼(水稻) 재배를 시도하고 있었다. 주요 농작물의 1畷當 수확량을 살펴보면, 大豆의 경우 십오리보에서는 급증했지만, 달자영둔에서는 급감했다. 고량의 경우 난하산둔에서는 늘었지만 십오리보와 달자영둔에서는 급감했다. 곡자의 경우 모든 촌락에서 감소추세를 나타내고 있었다. 포미의 경우 별 다른 수확량의 변화를 보이지 않았다. 그런데 같은 농작물이라고 해도 이들 조사대상 촌락마다 1상당 수

47) 『鄉村社會調查報告書』(統計編), 284 - 285쪽, 『部落別農作物作付狀況』.

확량에는 큰 편차가 있었다. 이것은 해당 지역의 기후나 자연재해 여부, 토질의 여부, 투입된 자본이나 노동력, 노동생산성의 차이에 의해 나타난 현상이라고 볼 수 있다. 난하산단의 경우 농작물 作付가 대체로 자급자족의 성격을 띠고 있었고, 高粱, 大豆, 玉蜀黍 등의 재배면적이 감소하고 있었지만, 『만주국』 당국의 棉花재배 독려로 그 재배면적이 증가하고 있었다.⁴⁸⁾

총신둔의 경우 각 작물의 작부비율을 보면, 高粱(수수)은 36.6%, 大豆는 25.5%, 包米는 18.3%, 穀子是 8.3%, 旱粳(메벼)은 5.4%, 水稻(논벼)는 2.1%, 채소는 3.2%, 기타는 1.5%였다. 이 촌락에서는 고량, 대두, 포미의 작부비율이 압도적으로 많았던 것이다. 3년에 1회씩 大豆에만 施肥를 했다. 당시 대두의 連作은 불가능했기 때문에 3년 輪作을 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⁴⁹⁾

熱河省 凌源縣 十五里堡에서는 상대적으로 수익성이 큰 罌粟(양귀비)을 재배해 생계의 상당 부분을 영속해 의존하고 있었다.⁵⁰⁾ 그 때문에 主食작물인 粟(조)과 高粱 이외에는 거의 대부분의 경작지에 阿片을 파종하고 있어서 아편의 작부면적이 상대적으로 클 수밖에 없었다.⁵¹⁾ 십오리보는 아편과 농업 경영, 농민생활 사이의 연관성을 보여주는 특수 촌락의 사례라고 할 수 있다. 光緒 32년 청조 정부는 禁煙令(아편 금지령)을 공포하였지만 정부의 명령이 관철되지 않아 관리들도 아편재배를 위한 사적인 개간이나 재배를 묵인하고 있었다. 『만주국』 시기에도 이 지방(능원현)에서는 아편재배에 관해 어떠한 제한이나 부담을 지우지 않았기 때문에 농민들은 다투어 토지를 구입한 뒤 아편재배에 종사하고 있었다. 그런데 아편을 재배할 때는 보통작물을 재배할 때보다 훨씬 많은 노동력을 필요로 했다.⁵²⁾ 아편은 수확기가 짧았기

48) 『鄉村社會調查報告書』(記述編), 8쪽, 16쪽.

49) 『鄉村社會調查報告書』(記述編), 105쪽, 109쪽, 113쪽.

50) 십오리보에서 아편 경작자들의 총 현금수입은 2,418.42원이었는데, 이 중 아편수입은 1,078.02원으로 전체 현금수입의 44.6%를 차지하고 있었다. [『鄉村社會調查報告書』(記述編), 345쪽]

51) 『鄉村社會調查報告書』(記述編), 175쪽.

52) 실제로 십오리보의 작물별 수요 노동력의 延人員 현황을 보면, 罌粟은 316.6명, 粟은 46.7명, 高粱은 55.5명, 大豆는 24.2명이었다. 즉 영속의 소요 노동력은 보통작물의 그것보다 6~13배나 많았다. [『鄉村社會調查報告書』(記述編), 183쪽].

때문에 連作이 가능해서 수확한 후에는 그곳에 蕎麥(메밀)을 재배하는 것이 보통이었다. 메밀을 수확한 후에는 쟁기로 뿌리와 줄기를 파헤쳐 토지를 休養케 하는 동시에 메밀의 뿌리와 줄기를 말려 연료로 사용했다.⁵³⁾

부여현 사가자둔의 계층별 작물재배 비율과 특징을 살펴보면, 이 촌락에서는 中農群 8호의 농업경영이 지배적인 위상을 차지하고 있었고, 年工이 많아서 노동력 부족현상이 없었다. 중농군의 경우 小麥 30%, 黃豆 20%, 高粱 10%, 吉豆 10%, 蔬菜 5%, 기타 5% 순으로 많이 재배하고 있었으며 소맥과 콩 재배가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다. 이에 비해 貧農群은 自家소비 위주의 식량작물인 粟(조)과 채소를 많이 재배하고 있었다. 경작규모가 큰 농가일수록 상품작물을 더 많이 재배해서 작물의 상품화를 추구하고 있었던 반면에 경작규모가 작은 농가일수록 자급작물의 재배비중이 높았던 것이다. 따라서 경작규모가 큰 농가일수록 시장의 농작물 가격변동에 영향을 많이 받았고 민감할 수밖에 없었다. 極貧農群에서는 경작면적이 크지 않다보니 농사는 주로 여성들이 담당하면서 채소를 많이 재배하고 있었고, 남자들은 대부분 年工이나 日工 등에 종사하였다.⁵⁴⁾ 극빈농군에서는 영세한 경작수입과 임금수입을 합쳐서 근근이 생활하고 있었던 셈이다.

<표 10> 奉天省 海城縣 攔河山屯의 경영형태별 1호당 가축 사육(소유)현황(1935)

部落 명칭	호 수	경영 면적	大家畜(役畜)					1頭當 경영 면적	小家畜		家禽	
			소	말	노새	당나귀	계		돼지	닭	오리	
地主	1	-	-	-	-	-	-	-	-	-	-	
地主自作	30晌미만	1	17.0	3	-	-	-	3	5.67	12	12	5
	5상미만	1	1.7	-	-	-	-	-	-	-	20	-
	계	2	9.4	1.5	-	-	-	1.5	6.23	6.0	16	2.5
地主自小作	5상미만	1	1.1	-	-	-	-	-	-	3	-	-
自作	30상미만	1	11.0	10	3	4	1	15	0.73	7	6	5
	10상미만	1	6.8	-	1	1	-	2	3.40	-	5	-

53) 『鄉村社會調查報告書』(記述編), 174쪽, 178쪽.

54) 『扶餘縣四家子屯調查報告書』, 175쪽.

部落 명칭		호 수	경영 면적	大家畜(役畜)					1頭當 경영 면적	小家畜		家禽
				소	말	노새	당나귀	계		돼지	닭	오리
	5상미만	2	1.4	-	-	-	-	-	-	1.5	5.5	0.5
	계	4	20.6	2.5	1	1.3	0.3	4.2	1.21	1.5	5.5	1.5
自小作	30상미만	1	11.9	7	2	2	-	10	1.19	2	16	2
	10상미만	3	6.9	0.3	1.7	1.7	-	3.3	2.07	8.4	5	1
	5상미만	1	1.2	1	-	-	-	2	0.60	1	6	-
	계	5	33.8	1.8	1.4	1.4	-	4.4	1.54	2	7.4	1
小作	5상미만	4	1.0	-	-	-	-	-	-	0.75	8	0.5
雇 農 地	農	2	-	-	-	-	-	-	-	0.5	1.5	-
	타	1	-	-	-	-	-	-	-	-	4	-

<출전> 『鄉村社會調查報告書』(統計編), 202-203쪽, 『No.1 經營形態別家畜飼養狀況(一戶當)』.

1935년도 난하산둔의 경영형태별 1호당 가축 사육(소유)현황을 살펴보면 (<표 10> 참조), 소가축이나 가금은 경작규모와 무관하게 사육하고 있었지만, 大家畜(役畜)의 경우 경작규모가 큰 농가일수록 월등하게 많이 소유하고 있었다. 또한 사가자둔의 경작규모별 역축 보유수 현황을 보면, 中農群, 빈농군, 극빈농군이 각각 34두, 5두, 2두였고 각 군의 1호당 평균 보유수는 각각 4.25두, 2.5두, 0.2두였다. 사가자둔의 중농군과 빈농군의 역축 1두당 경작면적이 각각 7.5상, 3.82상⁵⁵⁾이었던 점에서도 알 수 있듯이, 농업경작규모가 큰 농가일수록 역축의 소유 수가 많았고 역축 1두당 경작면적도 커서 그만큼 역축의 활용도도 높았다. 이것은 경작규모가 큰 농가일수록 역축의 활용도 제고를 통한 농업경영의 효율성 측면에서 유리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들 역축이나 가금의 가격을 살펴보면, 부여현의 경우, 소는 150~200원, 말은 100~120원, 노새는 150원, 당나귀는 40~50원, 돼지는 15원이었고, 계란은 1개에 2~4전이였다.⁵⁶⁾ 역축의 경우 노새 > 소 > 말 > 당나귀 순으로 비쌌다. 이 가격은 역축의 힘, 肉質의 선호도, 사육의 용이성, 다루기 등에 의해 결정되었다. 당시 남만주 농촌에서 대가축의 가격은 매우 비쌌기 때문

55) 『扶餘縣四家子屯調查報告書』, 195쪽.

56) 『扶餘縣四家子屯調查報告書』, 158쪽.

에 토지경영규모가 큰 농가들이 많이 소유·사용하고 있었던 것이다. 당시 빈농들도 지주로부터 토지를 임차할 때는 많은 돈이 들지 않아서 소작경영과 경영규모를 늘릴 수는 있었지만, 대가축의 경우는 많은 현금이 있어야만 구입할 수 있었기 때문에 이들 대다수는 대농들의 대가축을 빌려서 농업경영을 하고 있었다.

康德 원년(1934)~강덕 4년(1937) 사이 부여현의 연도별 役畜 및 家禽의 증감현황을 보면, 소는 6,651두에서 5,201두로 22%, 綿羊은 5,600두에서 2,878두로 51.4%, 山羊은 1,066두에서 300두로 28.1% 감소한 반면에, 말은 3만 1,255두에서 3만 4,248두로 9.6%, 노새는 5천 두에서 8,070두로 61%, 당나귀는 1,666두에서 4,755두로 285%, 돼지는 3만 7,274두에서 7만 8,224두로 210% 증가했다.⁵⁷⁾

<표 11> 西豊縣 忠信屯의 1호당 大農器具 소유현황(1935)

구분	5상미만	5 - 10상	10 - 20상	20 - 30상	30 - 40상
犁丈(쟁기)	1.3	1.5	2.0	3.5	4.0
壤耙(씨레)	0.3	-	1.0	1.0	2.0
鋤頭(대호미)	2.0	3.0	4.0	6.3	10.0
礮子(맷돌방아)	0.3	-	-	0.3	-
扇車(풍선차)	1.0	0.5	2.0	-	1.0
大車(마차)	0.3	-	-	1.7	2.0
馬槽(말구유)	0.3	1.0	1.0	1.7	2.0
磨	0.3	0.5	1.0	1.0	-
秤(저울)	1.0	0.5	1.0	0.7	1.0

<출전> 『鄉村社會調查報告書』(記述編), 104 - 105쪽.

다음에 충신둔의 사례를 통해 경작규모별 1호당 대농기구의 소유현황을 보면(<표 11> 참조), 말 두 마리가 끄는 쟁기, 씨레, 대호미(여럿이 양쪽에서 끈을 매어 잡아당기는 큰 호미), 말 두 마리가 끄는 맷돌방아, 꺾질과 낱알을 분리하는 풍선차, 마차 등의 농기구는 경영규모가 클수록 많이 소유하고 있었다.

57) 『扶餘縣四家子屯調查報告書』, 155쪽에서 산출.

부여현 사가자둔에서도 中農郡이 大車 7대, 碾子(소나 말이 끄는 맷돌방아) 3대, 磨(소규모 맷돌) 3대, 풍선기 2대, 쟁기 25개, 씨레 2개를 지니고 있었지만, 貧農郡은 대차 1대, 쟁기 3개를 지녔고, 極貧農群에서는 맷돌방아 1대, 쟁기 8개를 지녔을 뿐이었다. 농가 1호당 大車와 쟁기의 평균보유현황을 보면, 중농군의 경우 각각 0.86대, 3.13개였지만, 빈농군의 경우는 각각 0.5대, 1.5개였다.⁵⁸⁾ 즉 토지의 경영면적이 큰 농가일수록 농기구의 보유실태가 양호한 반면에, 토지의 경영규모가 적은 농가일수록 농기구가 부족했다. 영세농들은 경영규모가 큰 농가들로부터 大농기구를 빌릴 수밖에 없었다.

IV. 농작물의 판매와 농민의 收支실태

1936년에 조사된 남만주 농촌의 경작규모별 농작물의 매각비율, 즉 商品化率을 살펴보면(<표 12> 참조), 면화를 제외하고 대체로 농업 경작규모가 큰 농민층일수록 농작물의 자급자족보다는 판매를 통한 이익을 추구하는 동시에 상대적으로 잉여농산물을 많이 확보하고 있었기 때문에 농작물의 상품화율이 높았음을 알 수 있다. 실례로 扶餘縣 四家子屯의 농민층별 농산물 판매비율을 보면, 중농군은 전체 농산물 판매량의 80.5%, 빈농군은 8.0%, 극빈농군은 10.0%였다. 계층별 1호당 평균 농산물 판매액을 보면, 중농군은 799.65원, 빈농군은 347원, 극빈농군은 89.08원으로, 중농군이 극빈농군보다 9배가량 많았다.⁵⁹⁾ 경작규모가 큰 중농군의 농산물 판매액이 전체의 4/5를 차지하고 있었던 셈이다. 이는 경작규모가 큰 계층일수록 농산물의 상품화율이 높았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시사해준다.

58) 『扶餘縣四家子屯調查報告書』, 168쪽.

59) 『扶餘縣四家子屯調查報告書』, 200쪽, 207쪽.

<표 12> 남만주 농촌의 경작규모별 작물의 商品化率

구분	호수	高粱	黃豆	穀子	黑豆	小麥	稗子	包米	당콩	면화	담배
부농	23	31	80	56	87	65	14	15	100	67	-
중농	81	16	53	42	66	66	5	7	87	73	90
빈농	84	12	77	19	58	34	-	3	62	74	-
極貧農	135	9	62	13	62	42	7	2	-	100	-
雇農	76	12	-	-	-	-	-	500	-	-	-

<출전> 滿洲國實業部臨時產業調查局 編, 1937, 『租稅公課篇 - 北滿・南滿農村實態調查報告書 - 』 (新京: 同調査局), 53 - 54쪽, 『第七表 農家群別・生産量・販賣量及商品化率』.

1934년도 향촌사회조사 대상 4개 촌락(난하산둔, 충신둔, 십오리보, 달자영둔)의 1호당 주요 농산물의 수확량 대비 매각량의 비율을 살펴보면, 大豆의 판매율은 각각 17.2%, 23.2%, 36.1%, 59.9%이었고, 高粱의 판매율은 각각 1.5%, 13.0%, 6.4%, 0.0%이었으며, 谷子の 판매율은 각각 54.1%, 0.0%, 1.0%, 0.0%이었고, 벼(水稻)의 판매율은 26.0%, 42.9%, 0.0%, 48.1%였다.⁶⁰⁾ 이 수치를 보면 상품작물인 대두와 벼의 판매율이 다른 작물의 그것보다도 훨씬 높았음을 알 수 있다. 대두나 곡자의 경우, 주로 경제력이 좋은 지주, 지주 겸 자작농, 지주 겸 자소작농, 자작농, 자소작농 계층에서는 높은 매각률을 나타낸 반면에, 생활이 궁핍한 소작농이나 雇農계층에서는 농산물의 매각 자체가 거의 없었다.⁶¹⁾ 전반적으로 남만주 농촌에서는 施肥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약탈적인 농법을 취하고 있었기 때문에 地力이 감퇴하고 있었고 토지도 알칼리성을 띠게 되어 생산량도 적었으며 판매량도 많지 않게 되었다. 그런데도 토지의 개량 없이 종래의 재래식 경작법이 취해지고 있었다.⁶²⁾

향촌사회조사 대상 촌락 가운데 농작물 재배상황에서 특이한 점을 나타낸 곳은 십오리보였다. 즉 이 촌락에서는 아편(주로 양귀비)을 많이 재배하고 있었다. 이 촌락에서는 1934년도에 들어서 3호가 새로 아편을 재배하면서 아편 재배농가가 9호로 증가했고, 기존에 아편을 재배해왔던 농가들 중에서

60) 『鄉村社會調查報告書』(統計編), 306 - 307쪽, 『部落別主要農産物收量ト賣却收量ト關係(一戶當)』.

61) 『鄉村社會調查報告書』(統計編), 308 - 319쪽, 『農産物收量ト賣却收量ト關係(一戶當)』.

62) 『扶餘縣四家子屯調查報告書』, 199쪽.

도 3호가 아편 재배면적을 늘렸다. 그 결과 1935년도 아편 재배농가 9호의 아편재배면적이 전체경작면적에서 차지한 비중은 각각 13.6%, 9.3%, 23.1%, 45.6%, 23.1%, 38.6%, 30.8%, 41.7%, 100%였다.⁶³⁾ 이것은 이들 농가에서의 아편경작비중이 매우 컸음을 말해준다. 특히 1935년도 십오리보에서의 각 농산물의 총 賣却가격을 보면, 대두의 총 매각가격은 11.7원, 고량은 3원, 곡자는 2.4원, 蘆子是 9.6원, 기타 농산물은 35.4원에 불과했지만, 아편의 총 매각가격은 1,880.7원으로, 이 촌락의 농산물 전체 매각가격(1,942.8원) 중에서 차지한 비중이 96.8%나 되었다.⁶⁴⁾ 사실상 이 촌락에서는 아편을 換金作物로 여겨 대다수 농가가 아편을 재배해서 현금화하고 있었던 셈이다. 이 촌락은 그야말로 ‘阿片部落’이었던 셈이다.

농산물의 판매와 관련해서 『만주국』 수립 직후에는 항일세력의 활동과 투쟁이 지속되고 있어서 만주 농촌의 치안이 확립되어 있지 않은 결과, ‘치안’문제가 농작물의 재배 및 판매, 노동력 확보 등의 방면에 일정한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즉 치안이 좋지 않은 지방, 다시 말해 항일세력이 자주 출몰하는 지역에서는 판매하기 위해 운반하는 농산물이 항일세력에게 탈취되는 것을 방지하고 항일세력의 식량재원을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만주국』 식민당국에서 농산물을 시장에 반출할 때 경비병을 동원해 농산물 운반대를 호위하는 경우가 많았다.⁶⁵⁾ 따라서 농산물을 원활하게 판매할 수 있느냐에 따른 상품화율은 치안확보 여부와 관련될 수밖에 없었다. 또한 치안이 불안정할 경우, 외부의 농업노동자들이 해당 촌락에 오는 것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농업노동력 확보에 곤란을 겪기도 했다. 이러한 현상은 일본의 식민지로 전락된 『만주국』 농촌이 지닌 ‘식민지 요소’라고 할 수 있다.

63) 『鄉村社會調查報告書』(統計編), 282 - 283쪽, 『No.3 農作物作付狀況』.

64) 『鄉村社會調查報告書』(統計編), 328 - 329쪽, 『部落別主要農產物賣却數量及價格』 및 330 - 331쪽, 『No.3 農產物賣却數量及價額』에서 산출.

65) 『扶餘縣四家子屯調查報告書』, 198쪽.

<표 13> 촌락별 주요 농산물 가격의 單價현황(1935)

村落 명칭	연도	大豆	高粱	谷子	小麥	糜子	棉花	阿片
海城縣 攔河山屯	1933	9.47	-	8.62	-	7.00	3.72	-
	1934	13.05	14.00	13.21	-	10.00	3.84	-
西豊縣 忠信屯	1933	-	-	-	-	-	-	-
	1934	15.49	13.65	-	-	-	-	-
凌源縣 十五里堡	1933	8.00	6.00	10.00	-	-	-	2.70
	1934	9.00	6.00	12.00	-	-	-	1.51
伊通縣 達子營屯	1933	7.92	3.07	-	-	-	-	-
	1934	8.23	11.00	-	-	-	-	-
扶餘縣 四家子屯	만주사변 전	12.00	-	8.00	18.00	-	-	-
	1938	15.00	-	14.00	32.00	-	-	-

<출전> 攔河山屯·忠信屯·十五里堡·達子營屯은 『鄉村社會調查報告書』(統計編, 328-329쪽, 「部落別主要農產物賣却數量及價格」에서; 吉林省 扶餘縣 四家子屯은 『扶餘縣四家子屯調查報告書』, 81쪽에서 산출.

1933~1934년 시기 남만주 농촌에서의 촌락별 주요 농산물가격 單價현황을 살펴보면(<표 13> 참조), 「만주국」의 치안이 서서히 안정되면서 阿片을 제외하고 전반적으로 주요 농산물의 單價가 상승하고 있었고, 사가지둔의 경우 만주사변 전에 비해 1938년도의 농산물가격이 급등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농산물의 가격을 시기별로 보면, 수확 직후인 10월에 가장 저렴했고 식량이 고갈되는 5~6월경, 즉 ‘보릿고개’에 가장 비쌌다. 가령 大豆의 경우 6월에 1石당 7.5원으로 10월의 4.15원보다 1.8배나 비쌌다.⁶⁶⁾

일반적으로 농산물가격의 급등은 농민의 소득증가로 이어지는 것이 자연스러운 현상이겠지만, 「만주국」에서는 반드시 그렇게 된 것은 아니었다. 왜냐하면 일본의 침략전쟁 확대에 따른 군사력 증가, 그에 따른 군량미의 급증으로 만주에서 생산된 많은 곡물들이 低價의 강제出荷(供出)를 통해 군량미로 전용되어 농민들의 실질적인 소득증대로 이어진 것은 아니었기 때문이다. 이 또한 「만주국」 농촌이 지닌 ‘식민지적 요소’라고 할 수 있다.⁶⁷⁾

66) 『扶餘縣四家子屯調查報告書』, 208쪽.

일반적으로 만주 농촌에서는 곡물의 거래가 시장이나 곡물 중개상인 糧棧을 통해 이루어졌다. 이 거래과정에서는 상인들에 의한 불공정한 중간착취가 많이 이루어졌다. 그런데 1937년 「만주국」의 農事合作社에서는 농산물 교역시장 및 檢査場을 설치해 중간상인들의 착취를 배제하려고 했다.⁶⁸⁾ 그렇다고 해서 그러한 조치가 농민의 소득증대로 이어진 것은 아니었다. 즉 그것은 농민들의 농산물 판매과정에서 중간상인들의 개입을 차단한 대신에, 「만주국」 식민당국의 농산물 통제와 출하로 이어진데 불과했다. 즉 그것은 식민당국으로 하여금 중간상인 대신에 농산물 매매과정에 직접 개입해 농산물을 통제하거나 강제출荷를 용이하게 함으로써 戰時 軍糧米 확보나 전 시 농산물 통제체계의 확립을 위한 서막으로 작용했던 셈이다.

「만주국」의 농산물 강제출하실태를 살펴보면, 당시 식민당국에서는 屯長의 帶領 하에 농민들을 집합시켜놓고 정해진 시간과 노선에 맞추어 수십 대의 마차들로 糧穀出荷隊를 조직하게 한 뒤 경찰의 호송 하에 양곡을 交易所까지 운반하게 했다.⁶⁹⁾ 각 省이나 縣에서는 양곡의 출하를 독려하기 한 본부를 조직했고, 그 밑에는 ‘搜荷工作班’, ‘取締班’, ‘情報班’, ‘配給班’, ‘宣撫班’, ‘청소년특별공작반’ 등을 조직해서 양곡의 출하를 강제했다.⁷⁰⁾ 당시에는 농작물의 종류부터 양곡의 출하까지의 모습이, 마치 무장경찰이 ‘군사토벌’을 하는 것처럼 농민들에게 비쳐지고 있었다.⁷¹⁾ 「만주국」의 강압적인 양곡출하는 농민에게는 재난이었다. 양곡의 출하과정에서 수많은 농민들이 식민당국의 핍박을 받았고, 모든 지역에서 농민들에 대한 식민당국의 폭행과 만행사건이 발생했다.⁷²⁾

67) 상세한 내용은 「古海忠之筆供」(1954.6.13), 中央檔案館中央檔案館·中國第二歷史檔案館·吉林省社科學院 合編, 1994, 『日本帝國主義侵華檔案資料選編 東北經濟掠奪』(北京: 中華書局), 501 - 502쪽 참조.

68) 『扶餘縣四家子屯調查報告書』, 198쪽.

69) 『日本帝國主義侵華檔案資料選編 東北經濟掠奪』, 626쪽; 李淑娟 等著, 2014, 『日本殖民統治與東北農民生活(1931~1945年)』(北京: 社會科學文獻出版社), 144 - 145쪽.

70) 「金名世證詞」(1954.11.11), 『日本帝國主義侵華檔案資料選編 東北經濟掠奪』, 545쪽.

71) 『日本帝國主義侵華檔案資料選編 東北經濟掠奪』, 626쪽; 『日本殖民統治與東北農民生活(1931~1945年)』, 145쪽.

地價의 騰落상황과 관련해 西豊縣 忠信屯의 사례를 보면(<표 14> 참조), 淸 光緒 33년 토지의 개방(放荒)이 이루어졌을 때는 이주자가 적고 未개간지가 넓고 토지의 등급이 없어서 1方地(240畝) 당 銀子 82兩 6錢(114.7圓)에 토지가 拂下되었다. 또한 開荒 당시에는 소위 ‘5年6租’라 하여 5년간 소작료나 세금을 납부하지 않다가 6년째부터 升科(課稅徵收)가 시작되어 토지의 등급이 규정된 뒤 그것을 납부했다. 宣統 말년부터 이주자가 증가하면서 지가도 점차 등귀했다. 만주사변 후 치안이 불안해지자 지가는 급격하게 하락했다.⁷³⁾ 이후 치안이 안정을 찾아가면서 康德 원년(1934)의 지가는 만주사변 전의 지가로 회복되고 있었다.⁷⁴⁾ 吉林省 扶餘縣 四家子屯의 경우, 1938년도 上則地의 지가는 만주사변 전의 120원에서 200원으로 1.7배, 中則地는 같은 시기 100원에서 150원으로 1.5배, 下則地는 80원에서 100원으로 1.3배 올랐다.⁷⁵⁾

그런데 凌源縣 十五里堡처럼 아편을 재배한 촌락의 경우, 정부의 아편정책과 地價 사이에는 밀접한 상관성이 있었다. 가령 民國 9년(1920)부터 1畝당 6원씩의 아편세가 징수되었고 점차 늘어나 民國 13년에는 10원까지 올랐지만, 아편 재배면적은 實測보다는 농민의 申告에 맡기고 있어서 아편세의 부담이 가벼웠기 때문에 아편재배 수익은 상당했다. 그 때문에 비록 아편세가 징수되고는 있었지만 지가는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었다.⁷⁶⁾ 그런데 民國 15년부터는 旗公署에서 해마다 아편의 과중면적 신고를 받으면 실측을 해서 정규적인 아편세를 징수했고, 民國 18년에 禁煙法을 시행하면서 아편의 市價는 하락하기 시작했으며, 이것이 지가에 영향을 미쳐

72) 윤휘탁, 2017.12, 『만주국 시기 北滿洲의 村落실태와 농민생활』, 『만주연구』 제24집, 176쪽.

73) 가령 凌源縣 十五里堡에서는 民國 14년(1925)과 만주사변 발발 직전인 民國 19년(1930) 사이의 지가가 上則地는 100원에서 70원으로, 中則地는 60원에서 40원으로, 下則地는 20원에서 10원으로 급락하고 있었다[『鄉村社會調查報告書』(記述編), 174쪽].

74) 『鄉村社會調查報告書』(記述編), 102쪽.

75) 『扶餘縣四家子屯調查報告書』, 81쪽.

76) 『凌源縣土地價格并借地料金表』에 의하면, 이 지역에서 罌粟의 재배되었던 畑地는 100원이었던데 비해, 보통작물의 재배되었던 平地나 山地의 가격은 그보다 훨씬 낮은 50원, 15~20원에 불과했다[『鄉村社會調查報告書』(記述編), 174쪽].

지가의 하락을 촉발하기 시작했다. 더욱이 민국 18~19년에 대규모의 서리(霜) 피해가 있어도 면세나 감세의 특전이 주어지지 않자, 농민들이 다투어 토지를 매각하면서 지가도 급락하기 시작했다. 특히 이때는 토지를 매각하려고 해도 매수자가 없었기 때문에 廉價로 典出하는 방식으로 토지를 매각하는 일이 많았다.⁷⁷⁾

또한 만주사변 이후 빈발해진 兵匪의 害, 즉 사변 이후 초래된 치안불안 속에서 土匪나 항일군대, 일본군의 식량약탈이나 징발 등의 요인도 농민들에게 심리적으로 불안감을 심어주어 그들의 토지구입 욕구를 저하시켜 지가의 하락을 부추기기도 했다. 그리고 「만주국」 수립 이후 아편 전매정책에 따라 大滿公司가 일괄적으로 아편을 收買하면서 아편의 市價를 조종하고 있던 점도 아편재배농가의 의욕을 저하시켜 아편재배지역의 토지가격을 떨어뜨리고 있었다.⁷⁸⁾

당시 토지의 매매관행을 보면, 매주와 매주 사이에 地媒(經紀)이라고도 불림)가 있어서 매매가격을 알선했다. 지매는 해당지방의 토지소유자로서 신망이 있는 사람이 맡았으며, 매매가 성사되면 지매가 賣主와 買主의 立會하에 토지를 측량(丈量)했다. 매주가 屯外의 사람이라면 지매에 대한 보수로서 買主가 가격의 3%, 賣主가 2%를 經紀費로 지불했다. 같은 屯 내의 사람들끼리 거래할 경우에는 지매에 대한 보수로 買主가 ‘送禮’라고 불린 선물을 주었는데, 선물은 皮襖(가죽옷), 馬褂子, 밀가루 등이었다. 또한 매매계약을 체결할 때는 買主가 賣主의 宗族, 이웃사람, 촌장, 村副, 家長, 十家長 등을 초청해서 이들의 입회하에 公證署名(簽押)을 했다.⁷⁹⁾

77) 『鄉村社會調查報告書』(記述編), 174 - 175쪽.

78) 『鄉村社會調查報告書』(記述編), 175쪽.

79) 『鄉村社會調查報告書』(記述編), 102쪽.

<표 15> 향촌사회조사 대상 촌락별 1호당 臨時收支현황(1935)

촌락 명칭	臨時支出(圓)										차감
	현물 반환	대출금	현물 대출	출자금	冠婚費	葬祭費	의료비	賑濟	기타	계(B)	
海城縣 攔河山屯	-	-	-	-	18.89	10.00	2.80	-	34.00	147.48	-105.21
西豐縣 忠信屯	-	-	-	40.00	80.00	70.00	15.93	-	16.53	418.36	-262.94
凌源縣 十五里堡	-	1.15	-	-	12.69	9.00	0.54	-	2.00	36.05	-5.11
伊通縣 達子營屯	1.15	0.13	3.44	-	10.52	17.39	4.07	-	15.82	193.50	-96.03

<출전> 『鄉村社會調查報告書』(統計編), 448-449쪽, 「149 部落別臨時總收支狀況(一戶當)」.

그렇다면 남만주 농민들의 생활실태는 어떠했을까? 이것은 그들의 수익과 지출, 즉 收支 실태에서 잘 드러난다. 수지실태와 관련해 향촌사회조사 대상 4개 촌락의 1호당 臨時支出상황을 살펴보면(<표 15> 참조), 이들 4개 촌락의 임시수입 항목은 토지매각, 대가축 매각, 대출금 회수, 현물회수, 차입금, 현물차입 등이었는데, 그 수입총액은 각각 42.27원, 155.42원, 30.95원, 97.47원이었다. 반면에 임시지출 항목은 토지구입, 大농기구 구입, 大가축(말, 소, 노새, 당나귀) 구입, 차입금 반환, 현물형태의 반환, 대출금, 현물형태의 대출, 출자금, 冠婚費, 葬祭費, 의료비 등이었는데, 그 지출총액은 각각 147.48원, 418.36원, 36.05원, 193.50원이었다. 그런데 이들 촌락에서는 임시지출에서 예외 없이 모두 적자를 내고 있었다. 이것은 이들 농촌 촌락의 경제상황이 좋지 못했다는 것을 시사해준다.

한편 십오리보를 제외한 나머지 3개 촌락에서는 상당수 농가들이 副業을 통해 별도로 수입을 거두고 있었다. 가령 난하산둔에서는 지주 겸 자작농이 내과 의사로서 300원을, 자작농 2호가 泥工(건축공) 일로 13원, 자동차 운전수 일로 150원을, 자소작농 3호가 자동차 운전수 일로 120원, 점원 일로 150원, 零工(아르바이트)으로서 30원을, 소작농 4호가 行商, 鐵工, 炊事夫 일로 각각 6~100원씩을, 소작 겸 고농이 세탁 및 재봉사 일로 5원의 부수입을 얻고 있었다. 충신둔에서는 지주 겸 자작농 1호가 拉脚(운반일)으로 130원을, 소작농 1호가 수렵으로 48원의 부수입을 얻고 있었다. 달자영둔에서는 지

주, 지주 겸 자소작농, 소작 겸 고농(2호) 등 4호가 땀감 관련 일로 12~55원의 부업수입을 획득하고 있었다.⁸⁰⁾ 난하산둔에서는 醫藥業을 겸업하고 있던 농가가 2호, 綿香(솜) 제조업을 겸하고 있던 자작농이 1호, 行商을 겸한 소작농이 1호, 燒餅舖(떡집)을 운영한 자작농이 1호, 鐵工을 겸하고 있던 소작농이 1호 있었다.⁸¹⁾ 이 촌락에서는 철공, 목수, 행상, 의약업, 운반일 등의 일을 겸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것은 1935년 조사 당시 남만주 농촌에서는 농업경영 이외에 다른 직업을 겸직하거나 짬짬이 부업 일을 함으로써 별도의 부수입을 얻어 생활하던 사람들이 제법 있었음을 말해준다.

또한 해당 조사 촌락들에서는 다양한 방식으로 雜收入을 거두고 있었는데, 가령 지주 겸 자소작농, 자작농, 자소작농 등 7호의 농가가 자신의 馬車를 대여해서 3~480원의 잡수입을, 자작농, 자소작농 5호는 10~42원의 捐地수입을, 자작농 1호는 가족의 貸付를 통해 40원의 잡수입을, 소작농 1호는 210원의 出資 배당금을, 자작농 1호는 貸付金 이자로 3.6원을, 그리고 11호의 농가는 0.87~1,000원의 出稼者 送金を 잡수입으로 얻고 있었다.⁸²⁾ 특히 난하산둔에서는 전체 55호 가운데 出稼 인구를 지닌 世帯가 26호였고, 출가한 가족들의 送金を 받아 부수입을 얻고 있던 농가가 20호에 달할 정도로 많았다. 이 촌락의 농업경영 이외의 현금수입 총액은 6,171.6원으로 1호당 평균 112.2원이었는데, 그 대부분은 도시 출가자의 송금이 차지하고 있었다. 또한 능원현 십오리보의 출가자 현황을 보면, 몽골족이 62명(남자 22명, 여자 40명), 같은 촌락에 거주한 한족이 3명(모두 남자)으로 총 65명에 달할 정도로 많았다.⁸³⁾ 이것은 도시 출가자의 송금액이 촌락민의 경제생활에 상당한 보탬이 되고 있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동시에,⁸⁴⁾ 이 촌락에는 本屯에 거주하면서 都會地的 노동에 종사하는 사람, 농한기를 이용해서 도회지 노동에 종사

80) 『鄉村社會調查報告書』(統計編), 444쪽, 「No.1,2,4 副業收入及其使途狀況」.

81) 『鄉村社會調查報告書』(記述編), 3-5쪽, 「部落の構成」.

82) 『鄉村社會調查報告書』(統計編), 446쪽, 「No.1,2,3,4 部落別雜收入」.

83) 『鄉村社會調查報告書』(記述編), 231-234쪽.

84) 『鄉村社會調查報告書』(記述編), 3-7쪽, 9쪽, 「部落の構成」.

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았다는 것을 말해준다.⁸⁵⁾ 그런데 십오리보에서 屯外로 出稼한 사람들의 원인을 살펴보면, 均分相續이 14건, 생활난이 3건, 친척의 亂脈이 2건, 철도부설이 1건, 군대의 침입이 1건, 가정불화가 1건, 불명이 1건으로,⁸⁶⁾ 均分상속에 따른 分家나 토지 세분화가 압도적으로 많았다. 이것은 전술한 것처럼 남만주 농촌에서 재산(주로 토지)의 均分상속제가 농가의 영세화를 촉발한 중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었음을 말해준다.

<표 16> 경영규모별 향촌사회조사 4개 촌락의 1호당 經常收支현황(1935)

경영규모별	經 常 收 入(圓)							
	농산물	소작료	副產物	축산물	勞賃	副業	雜收入	합계(A)
無경작자	108.30	68.30	-	8.25	372.69	13.13	86.88	657.55
1晌 미만	274.38	28.80	11.72	1.55	80.53	90.17	18.33	505.48
1~3상	707.44	8.33	34.85	14.19	217.67	110.83	413.43	1,506.74
3~5상	512.30	40.00	71.70	22.27	15.00	-	-	661.27
5~10상	2,039.40	-	147.26	2.67	101.50	67.50	115.75	2,474.08
10~20상	2,004.76	82.47	458.74	202.29	85.33	-	105.00	2,938.59
20~30상	1,698.07	6.93	109.24	45.18	272.00	43.33	160.00	2,334.75
30~50상	2,589.80	51.75	301.25	135.00	-	27.50	540.00	3,645.30
50~100상	600.00	489.50	-	3.00	-	-	-	1,092.50

경영규모별	經 常 支 出(圓)					차감 (A - B)
	농경비	생활비	租稅公課	負債利子	합계(B)	
無경작자	45.39	787.55	9.04	47.22	889.20	- 231.65
1晌 미만	93.85	434.83	4.43	26.26	559.37	- 54.00
1~3상	274.34	581.31	16.96	31.22	903.83	602.91
3~5상	181.13	744.78	20.90	84.00	1,030.81	- 369.54
5~10상	1,282.02	725.50	63.24	8.51	2,079.27	394.81
10~20상	1,216.13	2,210.85	134.75	33.33	3,595.06	- 656.47
20~30상	994.56	1,034.05	96.49	170.00	2,295.10	39.65
30~50상	1,771.15	1,639.92	67.94	48.50	3,527.51	117.79
50~100상	187.00	1,988.60	153.81	47.25	2,376.66	- 1,284.16

<출전> 『鄉村社會調查報告書』(統計編), 358 - 361쪽, 『經營面積別經常總收支狀況』.

85) 십오리보에 거주하면서 임시로 출가한 사람들은 농번기에 日工으로 20명 내외, 농한기에 일공으로 3인 내외였다[『鄉村社會調查報告書』(記述編), 243쪽].

86) 『鄉村社會調查報告書』(記述編), 241 - 242쪽.

향촌사회조사 대상 4개 촌락의 경작규모별 1호당 經常收支현황을 살펴보면(〈표 16〉 참조), 경작규모가 클수록 수입과 지출이 비례하였음을 알 수 있다. 다만 달자영둔에서 지주 겸 자작농으로서 50~100상 규모의 토지를 경작하고 나머지 소유지를 貸借해서 소작료 수입을 얻고 있던 大農 1호의 경우, 평균수입은 30~50상 규모의 토지를 경작하고 있던 계층의 1호당 평균 수입의 30%밖에 안 되었지만, 생활비나 조세공과금 등의 총 지출액은 30~50상 계층 지출액의 67.4%에 달했다. 그 결과 조사당시 이 대농은 약 1,284원의 수지적자를 내고 있었다. 이 대농의 적자원인은 농산물 수입이 30~50상을 경작한 계층의 수입보다도 훨씬 적었고(약 1/4) 부산물·부업·잡수입도 없었지만, 가족 수(21명)는 다른 계층보다 월등하게 많아 그만큼 지출이 많았던 데서 찾을 수 있을 것 같다. 그래서인지 이 대농은 경영규모에 비해 농경비를 적게 지출(30~50상 계층의 1/9 수준)한 반면에 생활비, 租稅公課金, 負債 利子에는 많은 지출을 하고 있었다.⁸⁷⁾ 농경비에 대한 지출규모가 작았다는 것은 농업생산성의 향상에 적극적인 투자를 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표 17〉 촌락별 농업경영비 현금지출현황(1935) (단위: 圓)

部落 명칭	촌락 호수	農舍 修繕	농기구	苗種費	小家畜 구입	飼料 구입	비료 구입	노임	소작료	기타	합계
海城縣 攔河山屯	55	2.75	10.83	1.16	1.76	24.15	13.90	32.50	26.68	8.40	122.14
西豐縣 忠信屯	51	0.33	18.27	5.44	17.06	37.77	5.40	72.54	-	2.25	159.05
凌源縣 十五里堡	54	2.15	1.11	0.06	1.73	1.39	0.42	12.12	-	0.90	19.88
伊通縣 達子營屯	79	-	2.21	0.76	1.97	0.50	1.31	46.11	4.35	3.59	60.80

〈출전〉 『鄉村社會調查報告書』(統計編), 380쪽, 『部落別農業經營現金支出狀況』.

향촌사회조사 대상 4개 촌락의 농업경영비 가운데 현금으로 지출된 현황을 살펴보면(〈표 17〉 참조, 노임지불 > 사료구입 > 농기구 구입 > 소작료 지불 >小家畜 구입 > 苗種費 순으로 현금지출이 많았음을 알 수 있다. 노

87) 『鄉村社會調查報告書』(統計編), 364 - 365쪽, 『No.4 經常總收支狀況』.

임과 사료구입을 위한 현금지출은 주로 지주 겸 자소작, 자작농 계층과 어느 정도의 농업경작규모를 지닌 20~50상의 중농과 대농 계층에서 많았다.⁸⁸⁾ 반면에 빈농층의 지출 가운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것은 粟·高粱·包米 등의 구입에 따른 식료비였다. 가령 부여현 사가자둔의 평균 생활비 지출항목현황을 보면, 식료비는 63%, 피복비는 15%, 기호품비는 9%, 光熱費는 5%, 기타는 8%였다.⁸⁹⁾ 또한 십오리보 농업노동자들의 경우에도 생계비에서 食費가 차지한 비중은 81.0%였고, 의복비는 7.7%, 광열비는 2.7%였을 만큼 식비의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았다.⁹⁰⁾

이 촌락에서는 생활비를 노동수입에 의존하고 있던 호수가 30호로써 촌락 전체호수의 55.5%를 차지하고 있었다. 또한 토지를 지닌 농업노동자의 생활수준이 토지가 없는 농업노동자의 수준보다 반드시 높았던 것은 아니었다. 이것은 이 촌락 농업노동자들의 생활이 궁핍했음을 시사해준다. 실제로 십오리보의 경우 1934년에 돈을 빌린 농가는 조사농가 28호 중에 11호였고, 質入한 농가는 9호였다.⁹¹⁾ 또한 부여현 사가자둔에서는 전체농가 56호 중에 절반인 28호가 부채를 짊어지고 있었다.⁹²⁾ 이것은 전체농가 중에 절반 이상이 적자와 빚에 시달리고 있었음을 말해주는 것이다. 사가자둔에서도 質入건수가 13건, 그 금액이 333.4원이었는데, 質物로는 衣服類가 많았고 팔찌나 귀고리 등의 귀금속 등이었다. 질입은 자연재해 때 많이 이용되었다. 질물의 대출액은 시가의 7할 정도가 일반적이었다. 전당포의 이자는 4할~2할이었다.⁹³⁾

상술한 향촌사회조사 대상 4개 촌락의 경우 대다수가 雇農인 無경작자층에서는 勞賃수입이 상대적으로 많았던 반면에 부채이자에의 비중은 大農層과

88) 『鄉村社會調查報告書』(統計編), 380 - 387쪽, 「No.1,2,3,4 經營形態別農業經營現金支出狀況」 및 383 - 384쪽, 「No.1,2,3,4 經營面積別農業經營現金支出狀況」.

89) 『扶餘縣四家子屯調查報告書』, 213쪽, 246쪽.

90) 『鄉村社會調查報告書』(記述編), 250 - 251쪽, 346쪽.

91) 『鄉村社會調查報告書』(記述編), 250 - 251쪽, 346쪽.

92) 『扶餘縣四家子屯調查報告書』, 233쪽.

93) 『扶餘縣四家子屯調查報告書』, 238쪽.

비슷할 정도로 컸다. 그리고 無경작자층, 1상 미만의 半雇農層, 3~5상의 빈 농층, 10~20상의 중농 하층도 경상수지에서 적자를 내고 있었다. 이것은 전반적으로 1935년 조사당시 남만주 농촌의 상당수 농가들이 收支상의 적자를 내면서 농업경영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는 것을 말해준다.

부여현의 경우, 광서 22년(1896) 청일전쟁이 끝나기 이전까지는 중국제품이 가장 많이 소비되고 있었지만, 광서 28년(1902) 이후에는 일본제품의 수입이 증가하기 시작했고 民國 15년(1926)에는 상당히 많이 수입되고 있었다. 그러나 만주사변 이전까지는 일본제품에 대한 배척 분위기가 고조되어 한때는 일본제품의 판매가 완전히 정체상태에 빠졌다. 「만주국」 수립 이후에는 이러한 排日정책이 없어지면서 1938년 조사당시 유통되는 모든 잡화품의 95%는 일본제품으로 바뀌었다. 당시의 주요상품은 綿布, 磁器, 약품, 화장품, 완구류 등이었다. 만주사변 전에 비해 만주사변 이후에는 상품의 가격이 많이 오르고 있었는데, 가장 급등한 것은 綿布類 및 식료품, 그 중에서도 小麥粉이었다.⁹⁴⁾ 부여현 사가지둔에서는 富農群이 가장 많은 피복비를 지출하고 있었지만, 일반 小農群에서는 옷을 몇 번이나 수선해서 최대한 오래 착용하고 있었다. 설날에 각 계층별로 구입하는 생활필수품의 평균액수를 보면, 富農群은 23원, 中農群은 19원, 貧農群은 18.6원, 極貧農群은 12원, 雇農群은 8원이었다.⁹⁵⁾ 당연한 사실이겠지만 농민층의 생활수준에 따라 생활필수품의 구입액수에 차이가 있었던 것이다.

농민들은 일용품의 95%를 縣城에서 구입했고 5%는 行商人을 통해 구입했다. 농민들이 먹는 일반 식량은 小米, 高粱, 包米粉이었고 설날, 단오절, 중추절에는 흰 밀가루 음식을 먹었다. 이 屯에서 쌀밥을 먹는 농가는 하나도 없었다. 식량이 고갈되는 6~7월경 가난한 농민들은 야채나 馬鈴薯(감자)를 먹거나 땀감을 채취해 내다팔아 식료를 구입하거나 친척·친구로부터 무이

94) 가령 부여현 사가지둔의 경우 이전에 6~7원이었던 小麥이 조사당시 36원으로 급등하고 있었다[『扶餘縣四家子屯調查報告書』, 246쪽].

95) 『扶餘縣四家子屯調查報告書』, 214 - 215쪽.

자로 돈을 빌려 구입하거나 하는 방식으로 생활을 연명해나가고 있었다.⁹⁶⁾

1935년부터 「만주국」에는 金融合作社가 설립되어 농업금융을 대부해주고 있었다. 그렇지만 대부의 전제조건이 담보물이었기 때문에 토지소유자들만이 금융대부의 혜택을 받고 있었다. 반면에 담보물이 별로 없던 농업노동자들이나 소농들은 금융합작사로부터 금전을 대출받을 수 없었다. 그 때문에 금융합작사에 대한 여론이 좋지 않자, 1937년부터 특별 보증대출의 길이 열렸다. 그런데 금융합작사에서 특별 보증대출의 취급을 保甲長에게 위탁했기 때문에 보갑장들이 情實에 치우쳐 자신들의 친척이나 知人들에게만 대출의 기회를 주었다. 그 결과 가난한 소작농들은 여전히 용자를 받을 수가 없었다.⁹⁷⁾ 남만주 농촌의 가난한 농민들은 금융기관으로부터 아무런 도움도 받지 못한 채 힘겨운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V. 결론

「만주국」 시기 남만주 농촌에서도, 북만주 농촌과 마찬가지로, 토지소유의 불균등성과 양극화가 심각했다. 소수의 지주(특히 부재지주)들이 대규모 토지를 차지하고 있어서 소작지가 자작지보다 압도적으로 많았고, 토지 없는 농민들이 많다보니 소작농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다. 또한 부재지주의 소유지 규모가 커서 屯內 거주 지주로부터의 소작건수보다도 屯外 거주 지주(不在地主)로부터의 소작건수가 많았으며, 소작인들은 상대적으로 간섭이 덜한 후자의 소작지를 더 선호하고 있었다. 이처럼 부재지주의 비중이 높았던 것은 扶餘縣 四家子屯의 사례에서 잘 드러나듯이, 만주사변에 따른 치안악화로 인해 많은 수의 지주들이 縣城 등지로 이주했기 때문이다. 이는 만주가 일본에 의해 점령되어 식민지가 되면서 나타난 특징이었다. 남만주

96) 『扶餘縣四家子屯調查報告書』, 215쪽.

97) 『扶餘縣四家子屯調查報告書』, 220쪽.

농촌에서는 定額物納小作이 보편적으로 행해지고 있었지만, 만주사변 후에는 地價의 폭등과 지주들의 현금 납부 요구증대로 銀納定租 先佛 방식으로 바뀌기 시작했다가 1936년 이후에는 물가와 생활비의 폭등으로 은납에서 물납으로 다시 바뀌는 추세를 나타냈다. 소작료는 점차 등귀하고 있었으며 토질뿐만 아니라 자연지리적 조건(기후, 도회지 시장과의 거리, 교통여건), 노동력 공급의 용이성 그리고 치안상황 등에 영향을 받고 있었다. 당시 남만주 농촌의 소작인들은, 일본인 조사요원이 언급한 것처럼, 매우 비참한 생활을 하고 있었다.

일부 촌락에서는 특이성을 나타내고 있었는데, 가령 중국인과 조선인이 잡거하고 있던 촌락에서는 보편적으로 水田경작을 매개로 ‘중국인 지주-조선인 소작농’이라는 계급관계가 주류를 이루고 있었으며, 조선인 소작농들은 한족 지주들로부터 착취를 받고 있었고 상대적으로 사회경제적 지위가 낮았다. 몽골족 촌락에서는 한족에게 소작을 시켰다가 소작료만으로 생계가 곤란해지자 소작지를 회수해 자작농이 된 경우도 많았고, 일부는 그 토지마저 상실해 小農으로 전락된 경우도 있었다.

남만주 농촌에서도 無耕作자나 雇農의 비중이 비교적 높았으며, 여기에 半雇農 계층까지 포함시키면 그 비중은 매우 높았다. 그렇지만 그 비중은 북만주 농촌보다는 높지 않았다. 남만주 농촌에서도 북만주 농촌에서와 마찬가지로 일부 농가가 자작지에다가 소작지까지 대차해 富農경영을 추구하는 경향을 띠고 있었다. 남만주 농촌의 1인당 경작면적은 북만주 농촌보다 작았지만 일본 본토의 그것보다는 컸다. 일반적으로 경작규모가 큰 농가일수록 부양 가족원 수가 많았고 농업노동자 고용원 수도 훨씬 많았다. 농업노동자, 즉 고농은 노동능력에 따라 종류가 다양했고 그에 따른 임금수준도 달랐으며 계절에 따른 농경작업의 특성에 따라서도 임금수준이 달랐다. 남만주 농촌 내부에서는 상향분해 혹은 하향분해의 변화가 나타나고 있었다. 남만주 농촌에서는 농업경영 이외에 다른 직업을 겸직하거나 짬짬이 부업 일을 함으로써 별도의 부수입을 얻거나 가족 중 일부가 다른 지역으로 出稼

해 송금해주는 돈으로 생활하던 사람들이 제법 있었다. 그만큼 남만주 농촌에서의 생활은 어려웠던 것이다.

경작규모가 큰 농가일수록 상품작물의 재배비중과 상품화율이 높았던 반면에, 경작규모가 작은 농가일수록 자급작물의 재배비중이 높았고 상품화율이 낮았다. 그리고 비교적 가난한 촌락일수록 자급작물의 재배비중이 높았다. 일부 몽골족 촌락에서는 상대적으로 수익성이 높은 罌粟(양귀비)재배를 통해 생계를 유지하고 있었고, 그 재배면적도 증가추세에 있었다. 경작규모가 큰 농가일수록 역축이나 大농기구의 보유수가 많았고 역축이나 농기구의 활용도도 높았다. 영세농들은 그들로부터 역축이나 대농기구를 빌려서 영농을 하고 있었다. 전반적으로 남만주 농촌에서는 施肥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약탈적인 농법을 취하고 있었기 때문에 地力이 감퇴하고 있었고, 토지도 알칼리성을 띠게 되어 생산량도 적었으며 판매량도 많지 않게 되었다. 그런데도 토지의 개량 없이 종래의 재래식 경작법이 취해지고 있었다.

「만주국」 수립 직후에는 항일세력이 활동하고 있어서 치안문제가 농작물의 재배 및 판매, 노동력 수급 등의 방면에 일정한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이때 식민당국에서 농산물을 시장에 반출할 때 경비병을 동원해 농산물 運搬隊를 호위하기도 했다. 「만주국」 당국에서는 농산물의 출하를 강제하는 과정에서 농민들을 폭압적으로 대우했기 때문에, 「만주국」의 강압적인 양곡출하는 농민에게는 재난이었다. 「만주국」 시기에는 농산물 가격이 급등하고 있었지만, 식민당국이 군량미 충당을 위해 농산물을 저가로 출하하도록 강요하고 있었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농산물 가격의 급등이 남만주 농민의 수익증대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또한 「만주국」 식민당국에서는 중간상인의 착취를 방지한다는 명분으로 농산물 교역시장과 檢査場을 설치해 농산물 거래과정에서 중간상인을 배제시키려고 했지만, 식민당국이 매매과정에 직접 개입해 농산물을 통제하거나 강제出荷를 통해 戰時 군량미를 확보하거나 중간 거래이익을 독차지했기 때문에 이것 또한 농민들의 소득증대

로 나타나지는 않았다.

경작규모가 큰 농민층일수록 노임과 사료 구입비가 많이 지출되었고 빈 농층일수록 식료비 지출이 많았다. 분석대상 농가들 중 절반 정도는 농업경영상의 적자와 부채에 시달리고 있었다. 농민들의 생필품에서 일본제품이 차지한 비중이 점점 커지다가 만주사변 이후에는 독점적 위상을 차지하고 있었다. 남만주 농촌의 가난한 농민들은 금융기관으로부터 아무런 도움도 받지 못한 채 힘겨운 삶을 살아가고 있었다.

북만주와 남만주의 농업경영 특성을 비교해보면, 1호당 경작면적은 북만주에서 훨씬 넓었고, 남만주의 남쪽으로 내려갈수록 협소했다. 남만주에서는 1호당 경작면적이 협소하다 보니 1인당 토지경작면적도 북만주보다 작았다. 북만주에서는 자립적인 농민이 적었고 농업노동자의 비율이 남만주에서보다 현저하게 높았고 고용 노동력을 지닌 中·大農의 비율도 높았다. 남만주에서는 小農들이 우선적으로 自家소비에 필요한 자급농작물을 재배하지 않을 수 없어서, 북만주에 비해 자급농작물의 作付비중은 높았지만 상품작물의 작부비중은 낮았다. 결국 남만주 농촌에서는 가족 노동력에 의존하여 자급농작물 생산을 중심으로 하는 小農경영의 농업생산방식이 주를 이루었지만, 북만주 농촌에서는 고용노동력에 의존하여 大豆와 小麥 등 상품작물의 생산을 중심으로 하는 大農(富農)·中農경영의 농업생산방식이 주를 이루었다.⁹⁸⁾ 북만주 농촌에서는 大豆를 중심으로 한 植民地的 單一耕作化의 과정이 남만주 농촌보다는 늦었지만 남만주 농촌보다 급속하게 진행되었기 때문에, 富農的·資本主義的 經營으로의 발전가능성이 다분히 존재했다. 그렇지만 농업기술의 후진성과 일본의 침략로 야기된 半植民地的 桎梏에 의해 봉건적 성격을 재생산하고 있었다. 그 결과 북만주 농민의 궁핍과 농업적 피폐는 남만주 농촌보다도 훨씬 더 참혹했다.⁹⁹⁾

결국 북만주 농촌과 마찬가지로, 남만주 농촌에서도 토지의 개방과 불하

98) 權哲男, 2012, 『偽滿洲國農業經濟分析』(延吉: 延邊大學出版社), 44 - 45쪽.

99) 滿洲國軍政部顧問部 編, 1936, 『滿洲共產匪の研究』第1輯(新京: 同顧問部), 630쪽

가 늦게 이루어지고 극소수에게만 혜택이 주어지면서 토지소유관계가 극심한 불균등성을 나타내고 있었다. 이것은 남만주 농촌 내에서의 극심한 빈부 격차를 초래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었다. 그로 인해 남만주 농촌에서도 북만주 농촌만큼은 아니지만, 소작농이나 고농의 비중이 컸다. 이들 소작농이나 고농은 농촌 내의 과잉인구를 형성해 값싼 노동력의 저수지 역할을 하고 있었다. 이것은 북만주 농촌에서와 마찬가지로, 남만주 농촌에서의 富農 경영을 부추기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었다. 이러한 특성들은 분명 남북 만주가 ‘개척지’로서 지니게 된 요인이었다. 한편 일본의 만주점령으로 야기된 치안불안은 농산물 유통이나 농업노동력 수급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게다가 일본 식민당국의 戰時경제통제정책, 특히 농산물의 강제 출하와 물가의 통제 등은 남만주 농민들의 생활을 더욱 어렵게 만들었다. 이것은 분명 만주가 일본의 식민지로 전락된 데서 야기된 요인이었다. 한마디로 남만주 농촌에서는 북만주 농촌에서와 마찬가지로, ‘개척지적 요소’와 ‘식민지적 요소’가 중첩적으로 작용하면서 독특한 지역적·사회적 특수성을 드러내고 있었다.

참고문헌

1) 1차 자료

- 古海忠之筆供』(1954.6.13), 中央檔案館中央檔案館·中國第二歷史檔案館·吉林省社科學院 合編, 1994, 『日本帝國主義侵華檔案資料選編 東北經濟掠奪』, 北京: 中華書局
- 『金名世證詞』(1954.11.11.), 中央檔案館中央檔案館·中國第二歷史檔案館·吉林省社科學院 合編, 1994, 『日本帝國主義侵華檔案資料選編 東北經濟掠奪』, 北京: 中華書局
- 吉林省開拓廳農林科 編, 1939.3, 『扶餘縣四家子屯(康德五年度)農村實態調查報告書』, 『발행지 미상: 同農林科』
- 滿洲國國務院產業部 編, 1938, 『康德四年度縣技士見習生農村實態調查報告書』(全5册), 新京: 滿洲國國務院產業部
- 滿洲國國務院產業部農務司 編, 1938, 『康德五年度縣技士見習生農村實態調查報告書』(全5册), 新京: 滿洲國國務院產業部農務司
- 滿洲國國務院產業部臨時產業調查局 編, 1935, 『農村實態調查報告書』(第1~4分册), 同調查局
- 滿洲國國務院實業部臨時產業調查局 編, 1937, 『康德三年度縣技士見習生農村實態調查報告書』(產調資料 41)(奉天省 法庫縣 第二區五臺子村 團山子屯), 新京: 同調查局
- 滿洲國國務院實業部臨時產業調查局 編, 1935, 『康德元年度農村實態調查報告書』(產調資料1, 全3册), 新京: 同調查局
- 滿洲國國務院實業部臨時產業調查局 編, 1936, 『康德元年度農村實態調查報告書』(產調資料36, 第1~4分册), 新京: 同調查局
- 滿洲國國務院實業部臨時產業調查局 編, 1937, 『康德三年度縣技士見習生農村實態調查報告書』(產調資料 38~41, 全4册), 新京: 同調查局, 康德4年
- 滿洲國國務院實業部臨時產業調查局 編, 1935, 『農村實態調查報告書』(第二分册), 新京: 同調查局
- 滿洲國國務院統計處 編, 1936.5, 『鄉村社會調查報告書』(記述編)
- 滿洲國國務院統計處 編, 1936.4, 『鄉村社會調查報告書』(統計編)
- 滿洲國實業部臨時產業調查局 編, 1937, 『康德元年度農村實態調查報告書 雇傭關係并に慣行篇』(產調資料 45 - 5), 新京: 同調查局
- 滿洲國實業部臨時產業調查局 編, 1937, 『康德元年度農村實態調查報告書 農業經營篇』(產調資料 45 - 3), 新京: 同調查局
- 滿洲國實業部臨時產業調查局 編, 1937, 『租稅公課篇 - - 北滿·南滿農村實態調查報告書 - -』, 新京: 同調查局
- 中央檔案館中央檔案館·中國第二歷史檔案館·吉林省社科學院 合編, 1994, 『日本帝國主義侵華檔案資料選編 東北經濟掠奪』, 北京: 中華書局

朴魯哲, 1927, 『長白山 줄기 났으며 - - 吉林서 間島 8백리 - - 』, 『동아일보』 8월 24일자

2) 연구서

孔經緯, 1984, 『最近東北區域研究資料目錄』, 臺北: 中央研究院近代史研究所

李淑娟 等著, 2014, 『日本殖民統治與東北農民生活(1931~1945年)』, 北京: 社會科學文獻出版社

長野郎, 1931, 『滿洲問題の關鍵間島』, 東京: 支那問題研究所

中兼和津次, 1981, 『舊滿洲農村社會經濟構造の分析』, 東京: アジア政經學會

3) 논문

廣瀬進, 1936.9, 『間島及東邊道地方に於ける朝鮮の特殊性(二)』, 『滿鐵調査月報』 第16卷 第9號

金子文夫, 1979, 『1970年代における‘滿洲’研究の狀況(I)(II)』, 『アジア經濟』 第20卷 第3號, 第11號

金子文夫, 1988, 『最近の‘滿洲’社會經濟史研究に関する文獻目錄(1979~1987)』, 『中國關係論說資料』 第30卷 第4分冊 上

鈴木隆史, 1971.4, 『‘滿洲’研究の現狀と課題』, 『アジア經濟』 第12卷 第4號

柳澤遊, 1981, 『‘滿洲事變’をめぐる社會經濟史研究の諸動向』, 『歴史評論』 第377號

윤휘탁, 2017.12, 『‘개척’과 ‘식민’의 중첩적 표상: 만주국 시기 北滿洲의 농업경영실태와 농민층의 변화』, 『한국민족운동사연구』 제93집

윤휘탁, 1991.1, 『1930年代(1934~38) 北滿洲 農村의 社會構成』, 『東洋史學研究』 제35집

윤휘탁, 2017.12, 『만주국 시기 北滿洲의 村落실태와 농민생활』, 『만주연구』 제24집

윤휘탁, 2001.4, 『滿洲國 農村의 社會像: ‘複合 民族構成體’의 視覺에서 본 植民地 農村의 斷想, 1932~1945』, 『한국민족운동사연구』 제27집

尹輝鐸, 1999.12, 『中國의 ‘滿洲國’ 社會經濟史 研究成果와 課題: ‘收奪史’ 一邊倒의 植民地史 研究와 ‘愛國主義’의 限界』, 『中國近現代史研究』 第8輯

李學文, 1933.1, 『間琿地方農況』, 『滿鐵調査月報』 第13卷 第1號

中谷忠治, 1935.12, 『間島に於ける農業機構の概要(完)』, 『滿鐵調査月報』 第12卷 第12號

투고일 : 2019년 04월 09일, 심사완료일 : 2019년 04월 25일, 게재확정일 : 2019년 04월 25일

■ Abstract ■

The Social Composition and Farmers' Lives in the South Manchurian Rural Area, 1932~1945

Yoon, Hwy-Tak (Hankyong National University)

Like the rural areas in northern Manchuria, the opening and landing of land in rural areas in southern Manchuria was delayed. Only a few people prospered and the benefits of land ownership relationship were unevenly distributed. The consequent disparity between the rich and the poor in the rural areas of southern Manchuria led to many peasant farmers and agricultural workers residing there. These peasants and agricultural workers not only suffered from issues related to overpopulation, but served as an area with cheap labor. As in the case of the northern rural half, the cheap and rich labor force in the southern Manchurian province also acted as a stimulate of farm management. In addition, anxiety and security concerns related to Japan's occupation had a negative impact on agricultural distribution and agricultural labor supply. The situation was further exacerbated with Japanese colonial authority's economic control policies, especially the forced shipment of agricultural products and the control of prices, which made peasant farmer life difficult. Similar to the northern rural area of Manchuria rural area, the 'pioneering factor' and 'colonial factor' in the southern rural area interacted in ways that reveal regional and social peculiarities.

Key words : southern Manchuria, northern Manchuria, pioneering, colonization, Manchukuo, rural society composition, agricultural management, peasant life